

스포츠 웨이브

지구를 위한 스포츠의 녹색 도전

이토록 특별한 한강

한강의 다리



#

해시태그 이벤트

여러분이 서울에서 주로 운동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나만의 서울 운동 맛집을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참여방법

1. 나만의 서울 운동 맛집에서 열심히 운동한다. 2. 해시태그와 사진을 개인 SNS에 업로드한다. #서울시체육회 #서울스포츠 #나의운동명소○○○
3. 서울시체육회 SNS를 팔로우한다. ▶ 인스타그램: @seoul_sports_council ▶ 페이스북: 서울특별시체육회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서울시체육회 #서울스포츠 #나의운동명소○○○



Contents



발행일 2023년 5월 1일
발행인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
편집인 정규혁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
편집위원장 황선환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편집위원 정준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정용철 서강대학교 교수,
 정진욱 동국대학교 교수
편집 시민홍보팀 운영하, 이해웅
등록번호 서울 라 4818
발행처 서울특별시체육회 (우)02119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82(상봉동)
웹진 news.seoulsports.or.kr
전화 02-490-2700
디자인·제작 코컴퓨터노벨리주
표지일러스트 윤예지

본지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지원으로 제작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04 스포츠 웨이브

지구를 위한 스포츠의 녹색 도전

- 1 스포츠로 행동하는 기후 위기 대응
- 2 친환경을 실천하는 스포츠 기업들
- 3 스포츠 현장에서 실천하는 친환경 캠페인

14 이토록 특별한 한강

한강의 다리

24 서울에서 뛰는 세계인

미국에서 온 마크가 들려주는
 서울의 라켓볼

28 School Of Sports, SOS!

신체와 정신은 하나! 힘차게 달려라!
 신현중학교 김유진 교사

32 變變 스포츠

똑똑해진 자가 진단, 디지털 헬스케어

34 서울에선 나도 프로선수

족구로 하나된 우리들, No.1 노원! No.1족구!
 노원JC

38 서울체육 70년, 레전드를 만나다

인생과도 같은 마라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봉주 전 마라토너

42 스포츠는 지금

국제대회 성적,
 국내 프로스포츠 리그 흥행으로 이어질까?

46 글로벌 스포츠 현장

스포츠가 곧 일상, 영국의 생활체육

48 아무튼 스포츠

스포츠도 피할 수 없는
 '요즘' 슛폼(Short-form)

50 스포츠 시네마

실패를 무릅쓴 청춘들의 짜릿한
 '리바운드'

52 숫자-LOG

진격의 배구! 2022~2023 V-리그

54 생생스포츠

어느 주말 오전, 아빠랑 함께하는
 가족 클라이밍 교실

58 SSC 뉴스

61 SSAD 뉴스

63 지그재그 낱말퀴즈

퀴즈판에서 정답을 찾아주세요

지구를 위한 스포츠의 녹색 도전

평년보다 벚꽃이 일주일 빨리 피고, 빨리 졌다.
전문가들은 이상 기후가 원인이라고 한다.
이처럼 지구 온난화와 환경 파괴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시작으로 스포츠의 힘을 활용해
지구를 위한 녹색 도전에 나서고 있다.



Foster Sustainable Sports Environment

스포츠로 행동하는 기후 위기 대응

흔히 스포츠는 메가 이벤트, 경기장 건설 등 환경을 해치는 영역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 국제올림픽위원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와 같은 스포츠 기구 및 단체들에서도 친환경적 요소에 집중하며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환경과 스포츠가 만나 일으킨 새로운 변화를 소개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어젠다(Agenda) 2020+5

이상 고온, 이례적인 폭우 등 기후 변동이 심해지고 있다. 스포츠 현장도 마찬가지다. 2023년 1월에는 독일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알파인 스키 월드컵 경기가 이상 기후로 눈이 없어 대회가 취소되기도 했다. 1월에 열리는 유럽 월드컵에 눈이 없나...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었다. 기후 위기에 대한 행동 대응과 정확한 측정이 더욱 필요해졌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서 올림픽도 벗어나지 않는다. IOC는 지난 올림픽 2020 어젠다에서 4번째 권고를 '지속가능성'으로 설정하

고, 발전시키고자 했다. 그리고 2020년 3월 IOC 집행위원회는 최소한 2030년까지 기후 친화적인 올림픽 대회를 개최할 것을 선언했다. IOC는 국제 스포츠 단체의 리더로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IOC는 이후 2020+5 어젠다를 최근 발표했다. 어젠다에는 올림픽이 나아가 할 방향 15가지 권고가 담겼다. 15개 중 2번째 권고를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강화하는 것(Foster Sustainable Olympic Games)으로 지난 5년 전 발표한 어젠다에 이어 다시 못 박았다. 새롭게 발표한 지속가능성에 관한 권고의 핵심 내용은 아래와 같다.



- IOC는 2030년까지 기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올림픽 대회를 개최한다.
- 앞으로 개최할 올림픽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전략을 개발한다.
- 자연 또는 문화 보호 구역에서 올림픽 개최를 위한 새로운 구조물 공사는 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하지 않는다.



IOC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개·폐회식을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 당시 주경기장으로 이용했던 나오차오(국가경기장)에서 치렀다

또한 어젠다 2020+5의 10번째 권고는 UN의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가능케 하도록 스포츠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명시했다. UN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목표로는 총 17개가 있는데 그중 12번 목표는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패턴, 13번 목표는 기후변화에 맞설 긴급한 행동 대응이다. IOC는 UN의 목표와 함께 스포츠 분야에서도 발맞춰 행동함을 어젠다를 통해 약속한 것이다.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위해 IOC는 새로운 경기장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경기장 신설을 피하고 임시 건축물로 경기장을 지을 것을 장려한다. 기존에는 개최 도시에서만 국한되던 올림픽 경기장 위치 선정 탓에 새로운 경기장을 짓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 어디든 적

합한 곳이 있다면 개최 도시 밖에서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지속가능성이 밑바탕이 돼 올림픽 경기 장소를 결정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IOC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사례를 예로 들 수 있다.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 개최 당시 사용했던 경기장 8개를 활용했으며 기존 시설이 없어 새로 지어야 하는 경우에도 2008 베이징 하계올림픽 때 사용하고 버려진 시설물들을 재활용했다. 버려진 공장에 올림픽조직위 사무실과 프리스타일 스키 빅 에어(Big air) 경기장을 건설한 것이다. 개·폐회식장 역시 2008년 하계올림픽 시설을 재활용했다. 수영장을 얼려 컬링장으로 사용했고, 농구장을 아이스하키 경기장으로 탈바꿈시켰다. IOC는 모든 경

기장을 새로 짓는 것보다 환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올림픽을 기획한다.

야구 메이저 리그(Major League Baseball): 그린 글로브 어워드(Green Glove Award) 수상

MLB에서는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가장 친환경적으로 구단을 운영하는 팀에 그린 글로브 어워드를 수상한다. 지구의 날은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한 세계 기념일이다. 2008년부터 시작한 그린 글로브 어워드 수상은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재활용 비율이 가장 높은 팀에 우승의 영광이 돌아간다. 각 구단은 이 상을 받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경영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8년 시작할 당시만 해도 평균 30%대에 머물던 각 구단의 재활용 비율이 2021년 우승팀인 미네소타 트윈



미네소타 트윈스 구단의 홈구장인 타깃 필드는 2010년, LEED 인증서를 받으며 메이저리그 최고의 환경 친화 구장으로 손꼽히게 됐다

“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줄이기 위해
시즌마다 준비했지만
사용되지 않은 음식들을
도시 내 단체에
기부하기도 했다
”

스의 경우 99%를 달성했다. 이외에 모든 구장이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미국 그린빌딩위원회에서 개발·시행하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를 갖춰 전기에너지 효율성을 높였으며 많은 구단이 90% 이상의 재활용 비율을 갖췄다. 미네소타 트윈스팀이 운영하는 구장은 2017년 미국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구장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며 친환경적으로 건설된 건물로 상을 받은 적도 있다. 구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고압 스팀으로 만들어내 전기에너지로 변환시켰다. 음식물 쓰레기 자체를 줄이기 위해 시즌마다 준비했지만 사용되지 않은 음식들을 도시 내 단체에 기부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들로 63t이 넘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다고 구단은 밝혔다. 미네소타 트윈즈 구단 부회장은 “우리 구

단은 옳은 일을 하는 것과 옳은 방법을 실천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프로스포츠 경기장에서 생산되는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재활용은 많은 이유에서 중요하다. 쓰레기가 환경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어떠한 일이라도 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실행할 것이다”라고 미국의 ABC뉴스 인터뷰에서 얘기했다.

스포츠 산업유통 시장:
독일 기업 글로브트로터(Globetrotter)
스포츠 산업에서 친환경적 방법이나 친환경 소재로 생산한다는 것은 악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 소개할 독일의 스포츠 기업인 글로브트로터(Globetrotter)는 스포츠 산업의 유통업체 역시 친환경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브트로터는 스포츠 용품 유통업체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스포츠 관련 의류, 용품 등을 판매하면서 어떤 스포츠 기업에서 생산된 물품이 가장 친환경적인지 비교한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에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물품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아무리 용품 생산 업체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모든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친환경 생산 마크 ‘A Greener Choice’를 부착해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당 기업 제품에 대해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제품인지 알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또한 소비자를 줄이기 위해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든 매장에 중고 물품을 사고파는 장소를 갖추고 캠핑, 등산과 같은 아웃도어 제품들의 수리·수선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글로브트로터 기업은 독일의 ‘지속가능성 어워드’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으며 지속가능한 스포츠 산업에 헌신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IOC의 사례를 보면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기관도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대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건설을 줄이며 기존 스포츠 시설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경과 스포츠는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함께 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다. MLB 사례에서는 프로스포츠 리그가 환경보호에 앞장서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스포츠에 대한 인기를 기후 위기 행동 대응에 대한 관심으로 환기시키는 방법을 고안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은 단순히 한두 기업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모든 사람이 함께해야 한다. 그리고 스포츠 산업은 특유의 에너지와 세대 간 소통, 문화와 언어 장벽을 넘는 인기를 이용해 개인의 환경보호 의식을 이끌어낼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독일 기업인 글로브트로터 사례에서 보듯 기업이 친환경 제품이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생산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끊임없이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소비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친환경적인 소비 활동이 이어지고, 더 많은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결심
모든 기업과 모든 개인이 마음을 모아야 기후 위기 행동 대응을 의미있게 할 수 있다. 기후 위기를 소재로 다룬 박서련 작가의 소설 <마법소녀 은퇴합니다>를 소개하며 이 글을 맺는다. 소설 속 마법소녀들은 기후 위기는 인간의 멸종을 가져올 것이며 이대로 시간이 흐르는 한 막을 수는 없다고 말한다. 마법소녀 연합회는 시간 능력이 가장 강력한 마법소녀의 능력으로 기후 위기로부터 인간을 구할 수는 없어도 시간을 늦춰 종말을 대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강력한 힘을 가진 시간의 마법소녀는 인류는 구원될 수 없다며 오히려 정해진 결말, 인간의 멸종을 앞당기려 했다. 다른 마법소녀들은 힘을 모아 저지하려 하고 결국 시간의 마법소녀로부터 능력을 빼앗았다. 빼앗긴 한 사람의 강력한 마력은 다수의 사람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이런 구절로 마무리한다.

—————
“어쩌면 이런 약간의 마력을 지닌 선량한 다수의 힘을 모아서 기후 재난에 맞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바탕으로 기후 행동 단체로 노선을 바꿀 것 같기도 하고요.”
—————
<마법소녀 은퇴합니다>

소설의 결말처럼 하나의 강력한 힘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다수의 선량한 힘은 모두의 선의를 위해 쓰일 수 있다. 환경, 기후 재난 등은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를 주도한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 어쩌면 이미 정해진 결말을 바꾸진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시간을 늦출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모두가 행동해야 한다. 스포츠도 마찬가지다. 🌱

글을 쓴 **서정화**는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로 2010년과 2014년, 2018년 총 세 번의 겨울 올림픽에 출전했다. 선수 생활을 마치고는 로스쿨에 진학해 법을 공부했다. 스포츠와 인권의 합작을 좋아하며 강아지를 키운다. 환경은 물론 동물권, 지구 법학, 자연의 권리 등에도 관심이 많다.

친환경을 실천하는 스포츠 기업들

‘인류세(Anthropocene)’란 ‘인간이 지구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라는 뜻에서 제안된 새로운 지질시대 개념으로 자연 환경 파괴로 인해 새로운 길에 들어선 지구 환경을 말한다. 인류세가 시작된 시점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지속 가능성’과 ‘환경 회복력’이 인류세의 중요한 가치로 변하고 있다는 점에는 많은 이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화가 된 기업인 이본 쉬나드(Yvon Chouinard)

‘환경 회복력’을 기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는 아웃도어 브랜드 P사에 관한 이야기이다. P사의 창업자 이본 쉬나드(Yvon Chouinard) 회장은 1960년대 초 주한미군으로 한국에 근무하면서 북한산 인수봉에 쉬나드 길 A, B코스를 개척한 등산 마니아였다. ‘지구가 유일한 우리의 주주(The earth is only shareholder.)’라는 기업 미션을 바탕으로 4조 원을 축적했다. 그는 ‘지구가 목적, 사업은 수단’이라고 말하면서 친환경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오래된 승용차를 운전하고 노트북과 휴대폰도 쓰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기인이다. P사는 사업 초부터 매년 어김없이 회사 매출의 1%를 ‘지구세(Earth Tax)’라고 명명해서 환경단체에 기부한 ESG 경영의 원조 기업이다. 정확히 50년 동안 기업을 운영했던 회장은 회사를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

단과 특별 신탁에 양도하고 2022년 은퇴했다. 자연을 사랑한 산악인이자 기업인 쉬나드 회장의 선행으로 P사는 MZ 세대를 중심으로 사랑받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됐다.

페트병으로 만드는 아웃도어 의류

국내에도 산악인 출신 창업자가 운영하는 아웃도어 브랜드가 있다. B사이다. 플라스틱을 이용해 실을 만드는 원료로 의류를 제작하는 공정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했다. 한국의 P사를 지향하는 B사의 세 가지 환경 친화 전략을 소개한다. 첫째, 폐기물도 잘하면 한국에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스틱’ 캠페인으로 플라스틱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폭발적으로 배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해 친환경 패션 비즈니스를 만들고자 노력해왔다. B사가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은 패션의류 생산의 원료가 되는 고품질의 원사를 국내에서 확보하는 문제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실행되는 폐기물 수거 체계로는 B사와 같은 회사가 제품의 원단을 만들 수 있는 고품질의 원사를 확보하기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고품질 원사의 재료가 되는 투명 페트병(PET)만을 별도 수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민간 수거 업체를 통한 현재의 방식으로는 페트의 수거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순물이 있어서 고품질의 원사 추출을 위한 원료 확보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난관



“ 이본 쉬나드 회장은 ‘지구가 목적, 사업은 수단’이라고 말하면서 친환경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

에 봉착한 B사가 시도한 첫 번째 전략은 역회수페트(PET) 재활용이다. 즉, 깨끗한 페트병만을 사용하는 국내 생수 회사를 통해서 소비자가 사용 후 폐기하는 페트를 직접 회수하고, 투명 페트병만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기업을 직접 찾는 것이었다. 재활용 업체를 통한 분리 작업을 진행하고 정제된 원료를 원 사업체에 보내 고품질 원사를 생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둘째, 국민 개개인을 통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통한 고품질의 KrPET 확보다. 이는 지속적으로 확대된다면 장기적으로 파급력 있는 규모로 커질 수 있는 방법으로 국민 1인당 소비하고 있는 연간 페트의 양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에 근거, 세대별로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 배출하고 압축 후 직접 재활용 업체에 전달하는 사이클을 의미한다. B사가 추구하는 전략을 통해 한국 사회 전반의 골

칫거리가 되고 있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며 폐기물 급증 관련 사회문제를 줄이고, 해외(특히 일본, 중국 등)로부터 대량의 폐기물을 수입하는 데 드는 비용 또한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 이 선순환 구조의 플라스틱 재활용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규모가 확대될 경우, B사의 제품 생산 원가를 낮춤으로써 회사의 수익률도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과도한 플라스틱

제품 사용에 따른 폐기물 증가와 연결된 사회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사적 ESG 경영을 추구하는 B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일반 기업과의 협업 관계를 구축해 페트병 재활용 프로젝트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B사는 G사와 함께 폐기물 재활용, 즉 K-rPET 소재로 만든 협업 굿즈(Goods) 작업을 진행 중이며, 아직 분리배출이 의무화되지 않은 은평구 일반주택지 분리배출 허브로서 G사 편의점 유통망을 활용하는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S커피 브랜드와는 일회용 아이스 컵을 매장에서 회수-재활용해 자사 N브랜드의 협업 굿즈 상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상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다양한 협력적 거버넌스 과정을 통해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반 기업들을 연결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고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환경 회복력’ 강화라는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각 주체가 추구하는 조직과 기업의 목표도 달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

글을 쓴 서용구는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및 경영전문대학원 마케팅 교수다. 20년간 650cc 빅스쿠터로 출퇴근 중이며 등산, 수영, 서핑을 즐기고 있다. 브랜드 마케팅과 유통산업 일타 강사로서 언론 지면에 종종 얼굴을 내비치고 있다.

스포츠 현장에서 실천하는 친환경 캠페인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직간접적 원인이라고 정의한다. 기후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 전반에서 친환경적 활동이 요구되며, 특히 스포츠처럼 기후변화의 영향력이 큰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스포츠 현장에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스포츠 분야 친환경 정책 활용: 관람 지원 및 캠페인을 통한 탄소 배출 감량

종목별 하위 리그와 아마추어, 학교 및 클럽 리그까지 감안하면 스포츠 관람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최근 5년 프로스포츠 평균 연간 관중 수가 766만9605명일 때 20%에 해당하는 153만3921명이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차량 1대당 2.6kg의 탄소를 배출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탄소 배출량은 398만8195t에 달한다. 이는 관람객들이 경기장을 방문할 때 친환경 대중교통이나 저공해 차량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 사업이나 리그, 구단의 캠페인이 탄소 배출 감량을 위한 계량적인 정책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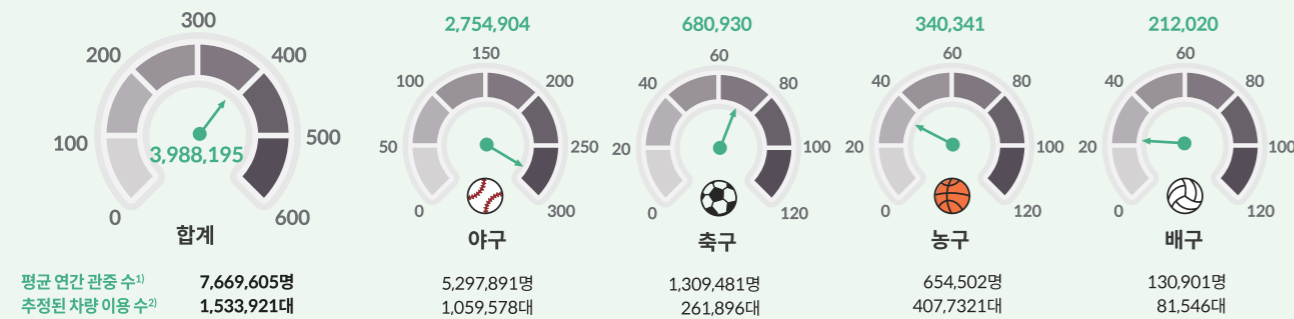
이와 관련해 창원시와 NC 다이노스는 업무 협약을 통해 프로야구 관람객 대중교통 연계 할인 서비스를 시행한 사례가 있다. 마산 야구장의 주차 면적이 줄어든 것에 대한 조치로 대중교통 이용 후 1시간 이내에 입장권을 구매하면 50% 할인 혜택을 제공해 개인 차량 이용 감소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지난 2022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프로스포츠 관람 티켓 40만 장을 배포했다

를 유도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코로나19로 침체한 프로스포츠 관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프로스포츠 4개 종목에 대해 프로스포츠 관람 할인권 지원 사업(반값 할인표)을 추진한 사례도 있다. 이를 통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측에서는 지속가능한 정책 과제 추진을 통해 환

프로스포츠 관람객 수에 따른 연간 탄소배출량 추정



경과 관련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종목별 리그나 구단에서는 친환경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책임 의식 강화: 스포츠 시설 플라스틱 프리-제로 & 재활용 100% 도전

스포츠 관람이나 스포츠 활동에는 필수적으로 식음료 섭취가 수반되고, 일회용 식음료 용기나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 문제 역시 증가하게 된다. MLB 사무국 제공 자료에 의하면 매 시즌 경기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약 1000t에 이른다. 경기장 내 음료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음료 용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시행한다. 펩시코(PepsiCo)는 2010년부터 '음료 용기 재활용 프로그램(PepsiCo Recycling Programs)'을 시행해 2018년까지 4억2500만 개의 음료 용기를 재활용했으며 '용기 자동 수거기(Reverse vending Machine)'를 경기장이나 스포츠센터 등에 설치해 기업의 제품이 유발하는 환경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사례들을 국내 스포츠 현장에서 적합하게 적용하는 것도 환경 이슈를 직간접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환경부와 스타벅스가 함께 추진하는 개인용 컵 이용 캠페인과 같이 스포츠 시설이 소재한 지역 행정 기관과 스포츠 시설 이용 주체가 식음료 제공 기업과 협의를 통해 일회용기 사용



내연기관차가 사라지고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포뮬러E 레이싱이 주목받는 스포츠로 떠오르고 있다

감소와 쓰레기 배출 감소에 상응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과제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MLB 사무국 제공 자료에 의하면 매 시즌 경기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은 약 1000t에 이른다 ”

친환경 활동, 스포츠 생태계 전체와 조화를!

지금까지 스포츠 관람이나 참여와 관련해 스포츠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캠페인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 앞서 제시된 내용 이외에도 스포츠 분야에서 환경을 살리기 위한 행동과 움직임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세계 최고의 모터스포츠인 포뮬러 원(Formula 1, F1)은 특히 유럽권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지만 다른 모터스포츠와 마찬가지로 내연기관이라는 태생적 특성으로 환경오

염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전기자동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포뮬러 E(Formula E)가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역시 배터리에 사용되는 원재료에는 중금속과 각종 화학물질 등 유해한 요소가 다수 포함돼 있고, 배터리를 생산하는 원자재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즉, 스포츠 현장의 가시적인 친환경 행동이 현실점에서는 친환경적 행위가 될 수 있지만 스포츠 생태계 전체를 보면 오히려 더 큰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의 요인이 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스포츠 관람이나 참여 전 과정에서 국지적인 친환경 행동의 득과 실을 계산해 궁극적으로 친환경적 요소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캠페인이 진행돼야 할 것이다. 🌱

글을 쓴 신성연은 경영학을 전공했으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의 스포츠산업연구실과 데이터분석센터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스포츠산업 정책과 기업 경영,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며 스포츠 분야의 국제 학술지 IJASS(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Sports Sciences)와 국내 학술지 체육과학연구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다.



한강의 다리 이야기

한강은 서울의 강남과 강북을 가로지르며, 충청북도, 경기도, 서울시에 걸쳐 흐른다. 발원지 검룡소에서 임진강과 한강이 만나는 곳까지 길이 49km, 하상폭 1~1.5km, 유수폭 300~1000m, 수심 2~5m. 서울 한강 위에 놓인 다리만 29개다.

서울 한강 위에 놓인 29개의 다리

오늘도 사람들은 한강을 분주하게 넘고 있다. 강남과 강북을 가르며 자연 장벽이 될 수도 있는 한강을 현대인들은 손쉽게 건넌다. 문득 궁금해진다. 사람들은 언제부터 한강을 나룻배가 아닌 교량을 통해 건너갔을까? 1900년 한강철교가 부설되면서부터다. 1899년에 경인선이 개통됐는데 당시 출발역은 노량진역이었다. 다음 해에 한강철교와 함께 경성역이 준공됐고, 1900년 7월에 '경성역~인천역'이 완전히 개통한다. 경성역은 나중에 서대문역으로 불렸는데 지금의 서울역과는 다른 곳이다. 한강철교는 기차만 다닐 수 있는 철도 전용 다리였다. 지금이야 교통카드만 있으면 간편하게 전철을 타고 한강을 건널 수 있지만 구

한말에 살았던 사람들이 손쉽게 오갈 수 있었을까? 일반 사람들도 편리하게 한강을 넘을 수 있게 된 건 1917년부터였다. 이때 한강 인도교라 불렸던 한강대교가 개통됐다. 이후 서울은 확장을 거듭했고, 한강의 다리도 더 많이 건설됐다. 그럼 서울의 한강에는 몇 개의 다리가 있을까? 총 29개다. 팔당대교(남양주시~하남시)처럼 경기도와 경기도를 잇는 다리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런 다리를 두고 서울시에서는 '시계의 교량'이라고 부른다. 외에 강동대교(서울시강동구~경기도구리시)처럼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을 잇는 다리는 '시계 연결 교량'이라고 한다. 한편 서울 강동구와 경기도 구리시를 잇는 고덕대교(가칭)가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등 앞으로도 한강 다리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교량의 종류

- **순수도로교량** | 자동차만 다니는 다리이며 한강에는 19개가 있다. (가양대교, 월드컵대교, 성산대교, 양화대교, 서강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 노량대교, 한강대교, 동작대교, 반포대교, 올림픽대교, 잠수교, 한남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잠실대교, 천호대교, 광진교)
- **철도교량** | 기차만 다니는 다리이며 한강에는 2개가 있다. (당산철교, 한강철교)
- **철도-도로 병용 교량** | 자동차와 기차가 같이 다니는 다리이며 한강에는 3개가 있다. 인천국제공항을 오갈 때 건너는 영종대교를 제외하고 서울시에만 있다. (동호대교, 청담대교, 잠실철교)
- **시계 연결 교량** |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을 연결하는 다리이며 한강에는 5개가 있다. (구리암사대교, 강동대교, 마곡철교, 방화대교, 행주대교)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 운영 기간 4~10월(11월부터 중단)
평일 12:00, 20:00, 20:30, 21:00, 휴일 17:00, 19:30, 21:30 추가 가동

동작대교: 지하철과 자동차가 함께 경주한다?

동작구 동작동과 용산구 이촌동을 잇는 동작대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도로 병용 교량이다. 푸른색 아치가 인상적인 동작대교는 1984년에 준공됐고, 그다음 해에 지하철 4호선이 개통한다. 동작대교 위로 푸른색으로 도장된 4호선 전동차들이 자동차들과 경주하듯 달리게 됐다. 전동차와 자동차가 한 공간에서 나란히 주행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무척 이색적이다. 그래서 동작대교는 영화나 TV 광고의 단골 다리로 등장했다. 미끄러지듯 전동차가 달리고, 그 옆으로 자동차가 경쾌하게 주행하는 모습을 주인공이 미소 지으며 지켜보는 장면이 그려지지 않나? 동작대교의 남단은 '동재기나루(銅雀津, 동작진)'라고도 불렸던 동작나루가 있던 곳이다. 동작역 4번 출구로 나오면 국립현충원으로 갈 수 있는데 중간에 이곳이 동작나루였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석이 서 있다. 옛날 나룻배로 동작나루를 건넌던 사람들은 남태령으로 향했고, 과천에 당도할 수 있었다. 삼남(충청, 전라, 경상)

지역으로 먼 길을 떠나야 했던 이들도 동작나루를 이용했다. 동작나루는 조선 제22대 국왕인 정조대왕이 화성 능 행차를 행하기 위해 건넌 곳이기도 했다. 왕의 신분으로, 나룻배로 한강을 건너지 않고 임시로 배다리를 만들어 한강을 건넜다. 배다리는 정약용 선생이 설계했다고 전해진다. 어쩌면 이 배다리가 동작대교의 시초일지도 모른다. 현재 동작대교가 놓인 자리는 예나 지금이나 수많은 이가 오갔던 교통의 요지였던 셈이다. 수많은 발걸음에 필자도 빠질 수 없었다. 동작대교 남단에 있는 구름카페와 노을카페로 향했다. 구름카페는 동쪽, 노을카페는 서쪽에 자리하고 있는데 동작역과 가까워서 접근성이 무척 좋다. 2009년에 오픈한 두 카페는 몇 년 전 재정비를 한 후 야경 명소로 재탄생했다. 한강은 당연하고, 남산은 물론 국립현충원을 품고 있는 서달산까지 파노라마로 볼 수 있으니 한강 전망 '맛집'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여의도와 가까워서 서울세계 불꽃축제를 편하게 볼 수 있는 명당으로도 입소문이 자자하다.



동작대교는 수도권 전철 4호선 철도교를 중심부에 두고 양쪽으로 3차선 도로로 이뤄진 철도-도로 병용 교량으로 한강 다리 중 11번째로 개통됐다



2023 한강 달빛 야시장은 4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주 일요일에 열린다

반포대교와 잠수교: 다리 위에 뜬 무지개를 보았는가?

필자가 도보여행가라서 그럴까? 한강에 있는 다리들을 걸어서 넘기 편한 순으로 분류한 적이 있다. '편함'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 1.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 2. 보행로가 넓어야 한다.
- ▶ 3.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쉽다.

위 세 가지 조건에 의하면 가장 쉽게 넘을 수 있는 다리는 잠수교다. 잠수교는 보행 공간이 넓어 주행하는 자동차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남단 쪽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는 버스정류장이 있고, 북단 쪽인 용산구 서빙고동에는 경의중앙선 서빙고역이 가까이 있다. 더군다나 잠수교는 795m로 한강 다리 중 가장 짧다. 이런 이유로 잠수교는 걸어서 넘을 수 있는 최적화된 한강 다리임에 틀림없다. 잠수교 바로 위로는 반포대교가 놓여 있다. 복층형인 것이다. 처음부터 이런 형태는 아니었다. 1976년에 잠수교가 건설됐고, 6년 후인 1982년에 반포대교가 추가로 건설됐다. 잠수교는 유사시

탱크나 장갑차가 통과하는 걸 염두에 두고 건설됐기 때문에 교량의 높이가 낮다. 다리의 높이가 낮은 탓에 비가 많이 오면 서울의 수많은 다리 중 제일 먼저 '잠수'하게 된다. 홍수 시에 한강 수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높이가 낮은 잠수교는 2008년, 차로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축소된다. 차로는 좁아졌지만 보행로는 넓어졌다. 시민들이 걷기에 아주 좋은 다리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이때 위층에 있는 반포대교도 달빛무지개분수가 설치되면서 새롭게 변신하게 된다. 반포대교 상판에 조명과 함께 분수 시설이 설치돼 더위에 지친 시민들의 가슴을 적셔주게 된 것이다. 형형색색의 조명과 함께 시원한 물줄기가 뿜어질 때는 관광객들의 탄성이 한강변에 울리게 된다. 지난 4월 1일 토요일, 2023년 첫 달빛무지개분수가 가동된 날이었다. 잠수교를 한 바퀴 돈 후 달빛무지개분수를 보기 위해 자리를 잡으러 갔다. 하지만 명당엔 이미 누군가가 돛자리를 펴고 있었다. 다리에서 쏟아지는 일곱 빛깔 풍경이 장관이다 보니 자리

싸움도 치열했다. 주변을 둘러보니 외국인도 많았다. 서울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달빛무지개분수는 인기 있는 볼거리로 자리 잡은 듯했다.

반포대교와 잠수교 하면 축제도 빠질 수 없다. 2022년에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가 개최됐다. 서울시는 잠수교를 보행 전용 다리로 바꿀 예정에 있다. 그에 앞서 축제를 통해 미리 체험을 해보자는 것이다. 올해는 상·하반기 10회씩, 총 20회의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작년 한강 달빛 야시장도 반포한강공원 일원에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다시 등장한 야시장으로 코로나19 전에는 '밤 도깨비 야시장'으로 불렸다. 40여 개의 푸드 트럭과 60여 개의 판매 부스 등이 야행을 즐기는 시민들을 즐겁게 해줬다. 작년에는 야시장 기간 동안 강남 일대 교통이 마비됐을 정도였다.

청담대교: 걸어서 건널 수 없는 다리가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이라면 선호하는 구간이 하나쯤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북한산과 수락산, 불암산을 동시에 볼 수 있는 4호선 상계역 구간을 좋아하겠다. 여의도의 고층 빌딩과

한강의 밤섬을 한눈에 관찰할 수 있는 2호선 당산철교 구간을 선호하는 이들도 있었다.

필자는 7호선 청담대교 구간을 좋아한다. 특히 한강 남쪽인 지하 구간에서 청담대교로 진입하는 그 순간을 무척이나 즐긴다. 전동차가 어두운 지하 구간에서 청담대교로 나올 때, 특유의 진동음이 발생하는데 그때 들리는 소음까지도 클라이맥스를 기다리는 배경음으로 들릴 정도다. 어두운 지하 구간에서 '딱' 하고 나오자마자 넓은 한강이 펼쳐지는 것 자체가 아주 극적이기 때문이다. 청담대교는 아래층과 위층으로 이뤄진 복합 교량이다. 아래층은 7호선 철로, 위층은 차로다. 본교는 1999년 12월에, 접속교는 2001년 1월에 개통됐다. 이렇게 접속교 개통까지 언급한 이유는 청담대교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보행이 불가능한 교량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담대교는 동부간선도로상에 있으면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와 바로 연결된다.

같은 철도-도로 병용 교량이지만 청담대교는 동작대교나 동호대교와는 다른 이미지다. 동작대교와 동호대교가 철로를 가운데 두고 차로가 좌우로 있는 구조라면 청담대교는 영종대교처럼 위아래 층층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도 언급했듯



총길이 795m인 잠수교는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가 명확히 구분돼 있어 서울 시민이 운동하기 위해 많이 찾는다



청담대교는 서울을 관통하는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보행자 통로가 없는 다리로 자전거, 이륜차도 통행할 수 없다

이 영화나 CF에서 동작대교에서는 전동차와 자동차가 나란히 주행하는 화면이 많이 그려진다. 이에 비해 청담대교를 배경으로 삼은 영화와 CF 장면에서는 한강변에서 청담대교를 올려 보는 모습이 많이 그려진다. 주인공이 청담대교를 배경으로 한강변을 바라보고 있고, 이때 마침 전동차가 지나가는 장면. 청담대교의 북단에는 독섬유원지역이 있다. 그 아래에는 독섬한강공원이 있다. 독섬한강공원이 독섬유원지였던 시절부터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곳에는 길이가 200m가 넘는 자벌레가 산다. 이 자벌레는 서울생각마루라는 복합 공간으로 전망 시설과 각종 문화 시설이 들어서 있다. 자벌레는 특이한 외형 덕에 포토존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고 청담대교를 넘었다. 어두운 터널에서

'딱' 하고 한강으로 나왔을 때의 쾌감은 여전했다. 독섬유원지역에서 하차한 후 커피 한 잔을 들고 자벌레 앞에 가서 사진도 찍었다. 이때 마침 청담대교로 전동차가 지나고 있었다. 이렇게 한강 위에 놓인 다리들은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는 무거운 이미지에서 탈피해 친숙한 이미지로 시민들에게 다가서고 있다. 거기에 재미까지 더해졌다. 한강 다리들이 이렇게 재밌는 곳이다. 시민들의 즐거운 놀이터로 새롭게 태어난 것이다. ☺

글을 쓴 **곽동운**은 역사 트래킹 마스터는 거창한 직함을 가지고 있다. 현재 백화점 문화센터와 서울시50플러스재단에서 <역사트래킹 서울학개론>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언젠가 트래킹을 좋아하는 이들과 '역사트래킹 공동체'를 꾸리는 꿈을 갖고 있다.

자전거 타고 달리고, 두 발로 건너는 ——— 한강의 다리

얇은 상의 하나만 입고 달리기에 좋은 계절이다.
봄바람 맞으며 한강 위에 펼쳐진 수많은 다리를 건너보자.
자전거로 달린 거리만큼, 두 발로 건너 거리만큼 계절의 맛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그전에, 자전거로 달릴 수 있는 다리와
다리 위 보행도로 상태를 숙지하고 떠나는 게 좋겠다.

Q. 29개 다리 중 자전거로 건널 수 있는 다리는 몇 개가 있나요?

A. 21개예요.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전거도로가 있어서 무정차 통행을 할 수 있는 다리	마포대교, 반포대교, 잠수교, 잠실대교, 광진교, 행주대교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만 통행할 수 있는 다리	가양대교, 월드컵대교, 양화대교, 서강대교, 노량대교, 한강대교, 동작대교, 잠실철교, 구리암사대교
자전거 도로가 있지만, 우회를 추천하는 다리	성산대교, 원효대교, 한남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자전거로 건널 수 없는 다리	방화대교, 마곡철교, 당산철교, 한강철교, 청담대교,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강동대교

Q. 29개 다리 중 도보로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다리는 몇 개인가요?

A. 23개예요. 보행도로와 자전거도로를 구분한 다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리도 있어요.

보행도로가 있는 다리	가양대교, 월드컵대교, 성산대교, 양화대교, 서강대교, 마포대교, 원효대교, 동작대교, 한남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영동대교, 잠실대교,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행주대교, 구리암사대교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구분한 다리	노량대교, 한강대교, 반포대교, 잠수교, 잠실철교, 광진교
도보로 건널 수 없는 다리	방화대교, 마곡철교, 당산철교, 한강철교, 청담대교, 강동대교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자전거로 달리는 다리 SPOT

Spot 1. 마포대교 자전거도로

길이 1.3km에 달하는 마포대교는 마포구 용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잇는다. 남단 경사로를 통하면 누구나 쉽게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승차상태로 자전거도로 진입이 가능하다. 마포대교는 천만 영화인 <어벤저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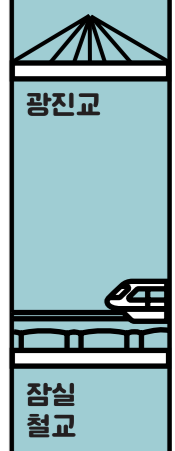


Spot 2. 광진교 자전거도로

광진구 광장동과 광동구 천호동을 잇는 광진교의 총 길이는 1.2km이다. 일제강점기인 1934년 8월에 착공한 광진교는 한강대교와 함께 한강에서 가장 오래된 교량이며, 한강 교량 중에서는 처음으로 양쪽에 각 2m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했다.

Spot 3. 잠실철교 자전거도로

잠실철교는 지하철 2호선 강변역과 잠실나루역을 잇는 철도 겸 도로교이다. 잠실철교의 서쪽은 자전거 라이더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다. 자동차는 다리의 동쪽에서만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다.



걸어서 건너는 다리 SPOT

Spot 1. 마곡대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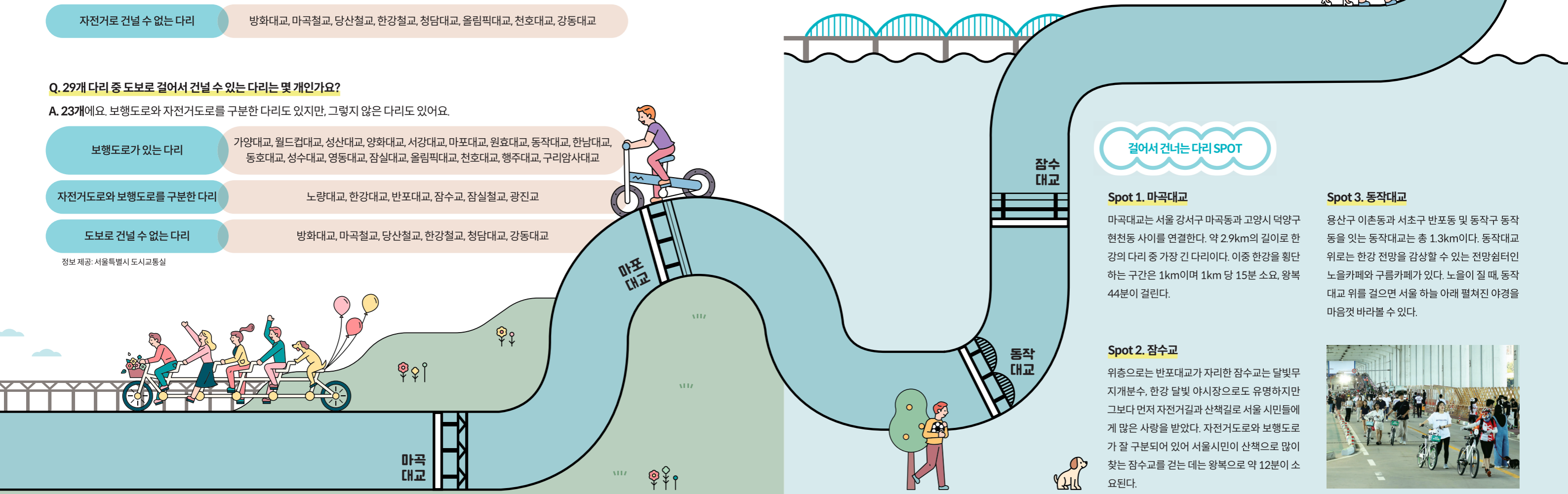
마곡대교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과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사이를 연결한다. 약 2.9km의 길이로 한강의 다리 중 가장 긴 다리이다. 이중 한강을 횡단하는 구간은 1km이며 1km 당 15분 소요, 왕복 44분이 걸린다.

Spot 2. 잠수교

위층으로는 반포대교가 자리한 잠수교는 달빛무지개분수, 한강 달빛 야시장으로도 유명하지만 그보다 먼저 자전거길과 산책길로 서울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가 잘 구분되어 있어 서울시민이 산책으로 많이 찾는 잠수교를 걷는 데는 왕복으로 약 12분이 소요된다.

Spot 3. 동작대교

용산구 이촌동과 서초구 반포동 및 동작구 동작동을 잇는 동작대교는 총 1.3km이다. 동작대교 위로는 한강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센터인 노을카페와 구름카페가 있다. 노을이 질 때, 동작대교 위를 걸으면 서울 하늘 아래 펼쳐진 야경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다.



MARK SALINAS  SEOUL

미국에서 온 마크가 들려주는 서울의 라켓볼

2008년 처음 한국에 온 마크는 한국인 아내와 결혼 후 본격적인 서울살이가 시작됐다. 그의 서울살이에는 미국에서의 흔적이 조금 남아 있는데 ‘라켓볼(Racquetball)’도 그중 하나다. 어렸을 적, 미국에서 가족과 함께 즐겼던 라켓볼을 이제는 서울에서 한국 친구들과 즐기는 마크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마크(Mark Salinas)입니다. 2008년에 한국에 왔으니 벌써 16년 차가 됐네요. 지금은 한남동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5학년 담임교사로 일하고 있어요. 제 취미는 라켓볼이에요.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자주 못했지만요. 요즘 체육센터가 재개방되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Hello! I’m Mark Salinas from the United States. It’s been 16 years since I came to Korea in 2008. Currently, I work as a fifth grade homeroom teacher at an international school in Hannam-dong. My hobby is racquetball, although I haven’t been able to play it frequently due to COVID-19. Now that the sports center has reopened, I’m planning to start playing again.”

MARK SALINAS  SEOUL



서울에서 라켓볼을 즐겨하는 곳이 있나요?

서초구민체육센터 라켓볼장을 많이 가요. 서초구에 거주하고 있어서 가장 많이 찾기도 하지만 서울에 라켓볼장이 현재 3곳밖에 없어요. 최근에는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일원스포츠문화센터에 라켓볼장이 새로 생겼어요. 서초구민체육센터보다 일원스포츠문화센터가 더 가까워서 이용권을 끊고 운동하러 자주 갈 예정이에요. 자주 가지 않지만 금천구민체육센터에도 라켓볼장이 있어요.

라켓볼은 어떤 종목인가요?

언뜻 보면 스쿼시와 비슷하지만 스쿼시와 라켓볼은 분명 다른 스포츠예요. 스쿼시는 천장 윗면을 쓰지 않는다면 라켓볼은 경기장의 모든 면에 공을 튕길 수 있어요. 볼(Ball)도 다른데 라켓볼의 크기가 더 크고 탄성도 있기 때문에 공의 속도가 스쿼시보다 훨씬 빨라요. 보호안경을 꼭 착용해야 해요.

Where do you play the Racquetball?

I often go to the Seocho YMCA. Since I live in Seocho-gu, it’s the place I visit most frequently, but currently there are only three racketball courts in Seoul. Recently, a new racketball court was opened at the Ilwon Sports Culture Center in Ilwon-dong, Gangnam-gu. Since it’s closer to where I live than the Seocho YMCA, I plan to purchase a membership there and go for workouts more often. There is also a racketball court at the Geumcheon Culture&Sports Center, although I don’t go there frequently.

What is racquetball?

Racquetball may seem similar to squash, but racquetball is a distinct sport. While squash is played without using the ceiling, racquetball allows the ball to bounce off all surfaces of the court. The ball used in racquetball is also different, as it is larger and more elastic, resulting in faster ball speeds compared to squash. It is important to wear protective eyewear when playing racquetball.

라켓볼 외에 다른 운동도 하나요?

스쿼시를 해요. 스쿼시와 라켓볼의 차이를 말씀드렸지만 두 종목이 비슷하기 때문에 라켓볼을 알면 스쿼시도 잘할 수 있어요. 라켓볼과 스쿼시를 한다고 말하면 “그럼 테니스도 하세요?”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테니스는 고등학교 때 하긴 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아요.

스포츠 외에 서울에서 즐기는 한국 문화가 있나요?

사실 저는 한국 전통주를 굉장히 좋아해요. 청주부터 약주, 발효주 등 한국 전통주라면 모두 관심 있어요. 종로구에 있는 한국전통주연구소에서 전통주 클래스도 들었을 정도로요. 사람들이 맛집 찾아다니는 것처럼 저는 지인들과 모여서 전통주 바(Bar) 다니는 것을 좋아해요. 저희끼리 ‘술 클럽’이라고도 해요.

Do you do any other exercises?

I also play squash. I mentioned the differences between racquetball and squash, but because the two sports are similar, knowing racquetball can help you play squash well too. When I mention playing racquetball and squash, many people ask me, “Do you also play tennis?” I did play tennis in high school, but I don't play it now.

Are there any Korean cultural experiences to enjoy in Seoul?

I am a big fan of Korean traditional alcoholic beverages. From Cheongju, Yakju. I have a keen interest in all types of Korean traditional drinks. I have even taken traditional liquor classes at the Korean Traditional Alcohol Research Institute in Jongno-gu. Similar to how people explore restaurants for good food, I enjoy gathering with friends and going to traditional liquor bars, which we jokingly call our “alcohol club.”

2



지난 4월에 열린 2023 아시아 오픈 라켓볼 대회에 출전한 마크의 경기 모습

4년 만에 다시 잡은 라켓

봄의 상징인 벚꽃이 만개하던 4월의 어느 주말에 서초구민체육센터에서 마크를 만났다. 4월 1일, 서초구협회장배 라켓볼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바깥은 꽃놀이 온 가족과 연인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가득했다면 서초구민체육센터는 경기장 바닥과 운동화의 마찰 소리, 공 튀기는 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웠다. 그 소리의 끝을 따라가니 지하 2층 라켓볼장에 도착했다. 4개의 코트장 안에는 이미 경기를 시작한 선수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코트장 밖으로는 코트장 안의 선수들을 응원하며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 선수들이 있었다.

코트장에 집중하던 이들의 이목이 한곳에 쏠리기 시작한 순간이 있었다. 4시에 복식 경기에 출전하는 마크가 도착한 것이다. 마크를 발견하자 반가운 얼굴로 저마다 “Hello” 하며 인사를 건넸다. 이곳저곳에서 마크의 이름이 들렸고, 부름에 모두 답하는 마크의 모습에서 다정함을 엿보았다. 하지만 실전 경기에 들어서자 눈빛부터 달라지는 마크다. 20여 분의 경기를 마치고 코트장을 나온 마크의 빨간 얼굴이 경기에 얼마나 온 힘을 쏟았는지를 보여줬다.

“It's been 4 years.”

필자를 보고 가장 먼저 한 말이다. ‘지금’을 빼면 가장 마지막에 친 라켓볼이 2019년이라고 한다. 코로나19가 문제였다. 코로나 19 전까지 친구들과 서울의 라켓볼장을 다니며 꾸준히 즐겨했지만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실내 체육시설이 폐쇄하기 시작했고, 대회도 열리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 즐긴 라켓볼

마크는 서초구협회장배 라켓볼 대회를 시작으로 라켓을 다시 잡았다. 이날 대회 목표는 우승이라기보다 ‘즐기는 것’이 목적이 라고 했다. 라켓볼을 같이 쳤던 친구들과 오랜만에 같이 경기를 치르는 만큼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마크는 4월 21일부터 4월 23일까지 아시아 라켓볼 연맹 주관으로 강남 일원스포츠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제9회 아시아 오픈 라켓볼 선수권 대회 단식 경기에 출전한다. 코로나19 이후 열리는 첫 라켓볼 국제대회이기도 하다. 체육센터도 라켓볼장을 다시 개방하고, 대회들도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라켓볼을 재개할 것이라 말하는 마크의 표정에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올랐다. 마크는 2017년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아시아 라켓볼 선수권 대회에 복식 경기로 참가한 경험이 있다. 당시에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건강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다며 그날을 회상했다.

마크가 라켓볼을 처음 접한 것은 12살이었다. 마크의 부모님이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라켓볼을 시작한 것이 계기였다. 가족들과 자주 라켓볼을 쳤고 이후 코로나19로 잠시 중단했던 때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라켓을 놓은 적이 없다. 기록 경기가 아닌 스포츠 종목은 대부분 우승을 목표로 하지만 마크는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해온 경험 때문인지 매 경기, 우승보다는 즐기는 마음으로 경기를 치른다고 한다. 그래서 제9회 아시아 오픈 라켓볼 선수권 대회의 목표도 ‘우승’이 아니다. 늘 그랬듯 ‘건강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기’이다. 🍷

'School Of Sports, SOS!'는 현직 체육선생님들의 실제 학교 수업에 참여해 그들의 수업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생생한 현장을 담은 코너입니다.

신체와 정신은 하나! 힘차게 달려라!

신현중학교 김유진 교사

코로나19 장기화가 남긴 후유증으로 무기력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많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신현중학교 김유진 교사는 '달리기'로 몸과 마음에 행복을 불어넣는 시간을 마련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탕!



“ 혼자 달리면 지루하고 힘들기만 할 뿐이다. 하지만 반 친구들과 함께 달리며 얻는 즐거움은 마음까지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만들어줬다 ”

행복 호르몬을 만드는 방법? 운동!

맑은 봄 햇살이 비추던 오전, 신현중학교 운동장에는 체육복을 입은 2학년 4반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김유진 교사의 2교시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던 학생들은 수업이 시작하기 전, 자연스럽게 운동장 한편으로 나갔다. 반장이자 체육부장인 학생의 시범에 따라 준비운동을 하는 학생들. 스스로 준비운동까지 척척 해내고 나니 더욱 기운이 나는 모양이다.

수업 중이 올리자 김유진 교사와 학생들이 그들이 있는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다. 오늘 수업은 학교 주변을 연속해서 달리는 '로드 런(Road Run)'이다. 달리기 어플 '런데이(Runday)'를 통해 달린 거리와 시간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날은 총 6차시 중 5번째 수업이 진행되는 날이었다. 달리기 기록은 수행평가에 들어간다. 하지만 김유진 교사가 로드 런을 수업과제로 정한 이유는 달리기야말로 신체와 정신 건강 함양에 유익한 운동이기 때문이다. 달리기는 특별한 기구가 필요 없어 혼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나 스스로 달리기 습관을 들여서 성인이 되어서도 운동을 실천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이 수업의 최종 목표다.

김유진 교사는 학생들이 운동하는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밝고 기운찬 목소리로 수업을 시작했다. 먼저 운동과 감정의 상관관계에 대한 수업을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로 우울감, 무기력감,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본 학생이 있는지 묻자 학생들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김유진 교사는 학생들의 용기 있는 대답을 따뜻하게 품어주며 말했다. "이러한 감정들을 잘 조절하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갖춰야 할 능력 중 하



본격적으로 달리기 전에 몸을 풀고, 이론 수업을 듣고있다

나예요. 우리는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통해서 감정을 느껴요. 부정적인 감정이 심할 경우 약을 먹어서 조절하기도 해요. 그러나 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이 바로 운동을 하는 거죠." 운동할 때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엔도르핀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이 분비되는 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불리는 코르티솔은 감소한다는 것이다.

"운동을 하면 건강해진다는 것은 모두가 알아요.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진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 점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준비탕! 힘차게 달리자

김유진 교사는 30분 이상, 주 3회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달리기, 배드민턴처럼 우리가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으로 시작하는 것이 습관을 들이는 데 좋다는 말도 덧붙였다.



조원들 저마다 '행복 호르몬'을 찾기 위해 운동장을 힘차게 달렸다

운동이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자 학생들의 눈빛이 기대감으로 더 반짝였다. 이제 이론 수업은 끝났다. 김유진 교사가 외쳤다.

“여러분! 힘차게 도전해봅시다!”

학생들은 가볍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 4~5명씩, 총 5개 조로 모였다. 하지만 그냥 달리기만 하면 금세 지루해질 수 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휴대전화에 연결하고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음악을 틀 학생들. 신나는 음악이 들리니 짜뿌듯했던 몸이 금세 들쭉이는 모양이다. 어플 ‘런데이’를 켜고 달려서는 때, 김유진 교사가 안전한 달리기를 위해 “신발 끈 잘 묶자!”라고 말했다. 학생들은 다시 한번 운동화 끈을 만진 후 외쳤다. “준비, 시작!”

운동장으로 들어선 학생들은 미리 설치된 콘을 향해 달려서 운동장을 넓게 돌았다. 학생들은 자신의 몸 상태에 따라 힘껏 달리거나 걸으며 스스로 컨디션을 조절했다. 운동장을 나와서 학교 옆의 오르막을 오르는 학생들. 교문을 지나 봄꽃이 핀 돌길을 천천히 달린 다음 계단을 내려와 출발 지점으로 돌아왔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김유진 교사와 하이파이브를 하며 힘을 얻은 학생들은 다시 운동장으로 힘차게 달려 나갔다. 출

발부터 빠르게 달리기를 계속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다소 힘에 부쳐 했지만 꾸준히 달리면서 기운을 얻는 학생들도 있었다. 수행평가 항목에 포함되는 활동이긴 하지만 학생들은 점수가 아닌 달리기의 즐거움에 빠져든 모습이었다. 김유진 교사는 학생들이 무조건 빨리 달려 기록을 단축시키는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 때로는 천천히 걸으며 무리하지 말 것을 조언하고 체력이 뒷받침되는 학생들에게는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혼자 달리면 지루하고 힘들기만 할 뿐이다. 하지만 반 친구들과 함께 달리며 얻는 즐거움은 마음까지 긍정적이고 활기차게 만들어줬다.

더 나은 기록은 건강한 심신으로

어느덧 마지막 한 바퀴를 남겼다. 신현중학교 2학년 4반 학생들은 기록 단축을 위해 막판 스퍼트를 올려 힘껏 달렸다. 전력으로 달린 만큼 숨은 찻지만 출발 지점으로 돌아온 학생들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어렸다. 마지막으로 한 학생이 속도는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멀리서 달려오고 있었다. 김유진 교사는 학생이 지치지 않도록 마이크에 대고 응원하는 소리를 질렀다. 먼저 도착한 학생들의 함성까지 더해지면서 최종 한 학생가



이날 3조는 2학년 4반의 최고 기록(7분 27초)을 경신했다

지 모두 상쾌한 달리기 시간을 마쳤다. 약 20여 분간 달렸지만 쉬지 않고 달린 덕분에 학생들은 숨을 몰아쉬었다. 짧지 않은 시간을 달리니 힘들기는 했지만, 학생들은 기록지에 최종 기록을 적으며 보람을 느끼는 듯했다. 본인의 기록을 적으면서 다른 반, 다른 조의 기록과 비교하는 재미도 있었다. 이전 수업보다 달리기 시간이 단축된 조는 ‘Nice!’를 외쳤고, 시간이 늘어난 조는 다음 체육 수업에서는 기필코 시간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김유진 교사가 “아주 잘했어요!”라며 결과에 상관 없이 꾸준히 노력한 모든 조에게 박수를 보냈다.

곧 수업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릴 테지만 이대로 교실에 들어갈 수는 없다. 운동 후에 마무리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근육을 풀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조원들은 스트레칭을 위해 매트를 들고 들고 조별로 흩어졌다. 김유진 교사가 흥이 나는 음악을 틀자 학생들은 조별로 준비한 스트레칭을 시작했다. 지난 체육 시간에 조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든 스트레칭이다. 직접 난이도를 조절하고, 자세를 구상하며 만든 스트레칭 동작에 지겹기는커녕 마무리 시간마저도 즐겁다. 각자 사용한 매트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니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렸다. 수업을 시작할 때와는 달리 돌아가는 학생들의 발걸음은 좀 더 상쾌했다. 로드 런 수업은 이제 1차시만 남았지만 학생들에게는 달리의 즐거움이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이다. ☼

1조부터 5조까지 모든 조가 달성한 기록을 공유하고 스트레칭으로 수업이 마무리됐다



變變(변변)스포츠는 '변화하는 스포츠, 진화하는 스포츠'라는 콘셉트로 스포츠 비하인드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똑똑해진 자가 진단, 디지털 헬스케어

가상현실(VR)과 착용형 기기 등을 활용한 헬스케어 상품에서부터 개인 건강 정보 보호 및 보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있는 가운데 스포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다. 현대인들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힘을 빌려 운동을 통한 건강 유지와 행복 추구의 목표를 달성한다. 개인의 건강관리는 물론 초고령화 시대의 건강 격차 해소도 기대된다. 스포츠계에서 디지털 헬스케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 헬스케어 트렌드 '개인화·원격화'

디지털 헬스케어는 전통적 의료 분야에 정보기술(IT)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시너지를 결합해 질병을 예측하고 예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의 IT·가전 쇼 'CES 2023'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출품 기업 수와 부대행사 등을 보면 모두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했다. 현장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와 관련해 수면상태의 진단과 버추얼 케어(Virtual Care), 스포츠 테크, 자가 진단,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디지털 트윈, 만성 질병 관리, 하이브리드 케어 등 8가지 중점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이 펼쳐졌다.

황혜진 교수는 "올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가장 큰 특징은 가정용 디지털 서비스의 증가"라며 "이는 자가 진단 홈 헬스케어 시대의 본격화를 의미하며 운동 정보와 건강 데이터, 진단 등이 원스톱(One-Stop)으로 연결되는 일상 속 '셀프 헬스케어 시대'의 본격화를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원격 추적 시스템은 디지털 헬스케어 진단의 대표적 기술이다. 예를 들어, 신경계 뇌 질환 환자가 있다면 대사산물 분석으로 영양 섭취를 안내하는 한편 집에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와 음성 장비 등으로 걸음걸이와 말씨 등의 행동 진단을 통해 신속한 병원 진단을 연결하는 식이다. 성장세도 가파르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국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매출 규모는 약 1조 8200억 원 수준으로 매년 30% 이상 성장 중이다. 의료기기가 '절반' 수준을, 건강관리 기기와 플랫폼이 나머지 시장을 양분하는 구조다. 눈길을 끄는 건 투자 규모다. 지난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투자액은 495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8% 늘었다. 연구개발비(3502억 원)와 시설 투자 및 교육 훈련비(1448억 원) 등이다. 투자 유치액 총규모는 1조 6900억 원 수준이었다. 참여자 확대도 기대감 상승에 한몫한다. KIRI(보협연구원)의 최근 연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65세 이상 인구의 약 35% 이상이 원격 의료 서비스를 사용해봤거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대비 약 6배에 육박할 만큼 증가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원격 의료의 도입 후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 의료만을 허용할 뿐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 등을 허용, 원격 의료 경험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스포츠계에 부는 '스마트 헬스케어' 융합 기술

스포츠계에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헬스케어가 주목받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란 공통 목표 때문이다. 핵심 키워드는 사물인터넷(IoT)과 5G,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이다. 스포츠와 만난 스마트 헬스케어가 라이프스타일에 변화를 이끌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스마트 헬스케어는 기존 병원 중심의 진단과 치료의 수준을 넘어 사용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를 통해 예측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장 큰 특징은 사전 관리와 맞춤형 예방으로 스포츠나 운동 건강관리 등과 밀접성이 매우 크다. 대표적인 개인용 스마트 헬스케어 아이템은 스마트밴드와 스마트워치다. 노인과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만성질환자 등 약자에게는 빠른 처치가 관건이다. 원리는 몸에 밀착된 스마트 장비가 신속한 상태 파악을 지원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골자다. 일자리 파급 효과도 크다. 과학기술 기반의 헬스케어 기업의 전체 종사자 수는 1만3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결과다. 기업체 10곳 중 7곳이 30인 미만의 사업장이지만 마케팅과 IT는 물론 실기 교육 등 융복합 전공자를 선호한다는 장점이 있다. 청사진만 있는 건 아니다. 재택 의료의 대표적이다. 스마트 장비와 개인의료정보 등 민감 데이터를 다루야 하는 스마트 재택 의료의 경우 의료계 주장과 국민 건강 복지 차원의 명분이 맞선다. 개인정보 활용의 범위를 다루는 IT 업계와 의료계 간의 온도 차도 극명하다. 일상의 정착을 준비하는 선진 시장과 달리 실증 테스트조차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한국형 디지털 헬스케어의 육성을 위해서는 전향적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바람직한 재택 의료 모델의 시행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명분보다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



글을 쓴 유정우는 프로그래밍 프리젠티를 시작으로 경제신문 기자와 IT 매체 편집인 등을 지낸 독특한 경력의 소유자다. 경제 매체 논설위원과 대학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스포테인먼트와 S-MICE에 관심이 커 국제마인드스포츠협회 부회장과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한국관광서비스평가협회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에선 나도 프로선수'는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리그 형태로 운영하는 서울시민리그(S-리그)에 참가하는 동호회의 이야기를 담은 코너입니다.

족구로 하나된 우리들

어느 맑은 날, 공원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여있다. 누군가는 몸을 풀고, 다른 누군가는 운동화 끈을 단단히 고쳐맨다. 족구 동호회 '노원JC' 회원들이다. 모임이 시작하기 한참 전이지만 몇몇 회원은 진작 나와 경기 한판 벌이고 있다. 이들에게 주말은 곧 족구이다.

No.1 노원! No.1 족구!

노원JC



감독 김경식

“서울에 있는 다른 족구 동호회와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혼성 동호회’라는 점입니다.”

독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손재권 • 안녕하세요. 노원구에서 활동하는 족구 동호회, 노원JC 부단장을 맡고 있는 손재권입니다. 노원구족구협회 협회장 직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식 • 노원JC의 감독 김경식이라고 합니다. 단장, 부단장이 노원JC의 전체 회원 관리를 한다면 저는 운동 목적으로서 회원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회원별로 코칭도 하고 있고요.

족구를 처음 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손재권 • 족구 동호회 회원을 모집한다는 플래카드가 시작이에요. 어떤 일인지 그 동호회에 가입하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건데 건강에 도움도 많이 될 정도로 저와 족구가 잘 맞았어요. 무엇보다 흥미를 느끼면서 자발적으로 모임에 나가게 되더라고요.

김경식 • 저는 축구로 시작했어요. 축구하게 될 운명이었는지, 어쩌다 한 번 한 족구에 빠져서 지금까지 25년을 하고 있답니다.

노원JC는 어떤 동호회 인가요?

손재권 • 노원구에 있는 족구 동호회 중 가장 전통이 깊고 인원이 많은 동호회입니다. 노원구 관내에 있는 모든 동호회가 ‘연합회’라는 명칭 아래 소규모로 우후죽순 있었습니다. 정리가 된 건 약 12년 전 협회 체제로 운영하기 시작하면서죠. 현재는 12개 동호회가 노원구족구협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듯 노원JC는 그중에서도 전통과 다수 인원을 자랑하는 족구 동호회입니다.

김경식 • 노원JC는 8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죠.(웃음) 노원구 내에서 활동하는 동호회를 비롯해 서울에 있는 다른 족구 동호회와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혼성 동호회’라는 점입니다.

노원JC는 매달 마지막주 일요일에 여성부 교류전을 개최해 여성들의 족구 참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단장 손재권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는 서울시에는 여성부 동호회를 초청해서 대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족구 혼성팀은 흔하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김경식 • 혼성 동호회는 서울에 많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모임에서도 남자 선수, 여자 선수 분리하지 않고 함께 경기를 뛰기도 하지만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는 서울시에 있는 여성부 동호회를 초청해서 대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 족구 동호회가 많지 않아서 섭외가 힘들 때도 있어요.

손재권 • 족구를 접하는 계기가 적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군대에서 족구를 처음 시작한 남성분들이 많을 거예요. 군대에서 즐겼던 족구도 전역하면 꾸준히 이어 나가기 힘들데 경험할 기회조차 없는 여성분들에겐 낯선 종목이나 마찬가지겠지요.

김경식 • 그 역할을 우리 노원JC가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여성분들도 처음에는 실력이 월등하지 못했어요. 잘 차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훈련을 거듭하니 지금처럼 경기도 신나게 즐기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노원JC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김경식 • 주말 정기 모임과 평일 모임이 있어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백합어린이공원 족구장에서 모임을 하고요. 평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모임이 있어요.

손재권 •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 월례대회도 열어요. 대략 12개 팀이 함께하고 있죠. 팀을 섞어 구성한 후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다른 모임 때와는 다른 신선한 즐거움도 있습니다.

노원JC의 자랑거리가 있다면요?

손재권 • 우리 김경식 감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죠. 김경식 감독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족구 교실 강사를 6년 동안 했어요. 구마다 열었던 족구 교실 감독으로요. 25년 족구 인생과 6년이라는 족구 강사 경력을 가진 사람이 노원JC의 감독으로 있습니다.

김경식 • (웃음) 부끄럽네요. 다른 자랑거리를 말씀드리자면 회원들 간의 단합과 친목을 들 수 있어요. 동호회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이웃 간에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는 60대, 70대 회원이 많이 있는데 성별과 나이 관계없이 함께 운동하는 분위기가 잘 조성돼 있어요.

노원JC 정기 모임의 모든 경기는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운영된다



노원JC는 지난 2021년 서울시민리그에 족구 A조로 출전해 우승을 거머쥐었다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서울시민리그 출전 경험이 많으시죠?

김경식 • 해마다 출전해요. 족구를 알릴 기회라고 생각해요. 실력 향상의 목적도 있지만 족구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참여하는 마음도 있어요.

손재권 • 서울시민리그는 예선전부터 결승까지 오랜 기간을 갖고 뛰어야 하는 대회예요. 처음에 구성한 멤버 그대로 끝까지 뛰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일 잘하는 선수가 매 대회 출전하면 좋지만 일정이 맞지 않는 등 돌발 상황에서 후보군이 뛰는 다양성이 있어요. 노원JC는 회원이 많아서 출전 기회가 다양하게 돌아간다는 점이 회원들에게 좋은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올해 서울시민리그 출전 목표는 무엇인가요?

손재권 • 대회를 뛰는 목적이야 최고의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죠.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김경식 감독이 모임마다 선수들을 관찰하면서 열심히 선수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 • 첫 번째는 우승입니다. 한편으로는 서울시민리그가 회원들에게 우승에 대한 목표 의식을 갖고 연습에 더 열심히 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족구를 경험해보고 싶지만 도전을 망설이는 분들께 한 말씀해주세요.

손재권 • 용기를 갖고 일단 도전하세요.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마다 족구협회가 있어요. 연락주시면 족구협회에 소속된 동호회들을 자세하고 친절히 소개받을 수 있어요. 도전하십시오!

김경식 • 한 적도 없고, 잘하지 못해서 망설이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해 본 적이 없으니 잘하지 못하는 게 당연해요. 부담 갖지 마시고 토요일 오후 2시, 백합어린이공원 족구장으로 오세요. 체계적으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초보자 환영이에요! 🍀

인생과도 같은 마라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국민 마라토너'로 남을 이봉주 전 마라토너. 3여 년 전 난치병인 근육긴장이상증 판정을 받고, 지난 2021년 척수지주막낭종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예나 지금이나 밝고 긍정적인 태도는 변함없다. 인생이 곧 마라톤이라고 말하는 그를 '이 사진' 한 장과 함께 만났다.



'서울시청'이 새겨진 유니폼에 배번호 '765번'을 달고 달리는 청년. 그의 눈앞에는 '지금'의 목표, 결승선이 펼쳐져 있다. 두 팔 번쩍 울리며 달리는 그의 얼굴에 '이제 됐다' 하는 안도감과 환희의 감격이 묻어난다. 765번, 서울시청 이봉주 선수가 출발선을 넘고 2시간 10분 27초가 흘렀을 때이다.

이 사진,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1993년 제74회 전국체육대회에 서울시청 소속으로 출전해 2시간 10분 27초 기록으로 우승했을 때예요. 마라토너로서 데뷔 경기는 물론 2009년 은퇴 경기 역시 전국체육대회에서 뛰었는데 출전했던 수많은 전국체육대회 중 1993년, 이 대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 대회에서 MVP까지 수상했죠. 같은 해 12월에는 미국에서 열린 하와이 호놀룰루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도 우승했구요.

서울시청 소속으로 1991년, 1993년 두 번 우승하신 거네요? 말씀하신대로 '두 번' 우승한 게 맞네요. 1992년에는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1992 바르셀로나 올림픽 선발전을 한 달 정도 앞두고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어요. 몸도 안 따라주고, 기록도 잘 안 나오면서 선수 생활에 회의가 들더라고요. 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으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걸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극복했어요.

서울시청 입사 전 그의 고등학교 시절 육상 선수생활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3번이나 학교를 옮겼지만 주위의 이목을 끌 만한 성적을 내지도 못했다. 그렇게 풀리지 않는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던 차에 1989년 제7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무명 선수로 1만 m에 출전해 3등으로 들어왔다.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얘기도 빠질 수 없어요. 1996년에 있었던 애틀랜타 올림픽은 지금 떠올려도 박진감 넘치는 경기예요. 아프리카 선수들이나 유럽 선수들이 워낙 강세였기 때문에 기대조차 하지 않았

는데 2시간 12분 39초 기록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게 됐죠. 당시 금메달을 차지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조시아 투과네(Josia Thugwane) 선수와 제 기록이 3초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또 3등으로 들어온 케냐의 에릭 와이나이냐(Erick Wainaina) 선수도 저와 3초 차이로 결승선을 통과했구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트랙까지 거의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말 피 말리는 레이스를 뛰었어요.

1990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시청에 입단하셨죠? 맞아요. 1990년에 입단해서 1993년까지 서울시청 소속 선수로 활동했어요. 서울시청은 제게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저를 키워준 팀이라고도 할 수 있죠. 서울시청 소속으로 코칭받고 훈련하면서 기량이 많이 좋아지는 것을 스스로도 느꼈어요. 성적도 많이 향상하면서 국내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구요. 사진 속 1993년 제74회 전국체육대회 당시의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청팀 선수 경험은 국제대회로 향하는 발판도 잘 다져줬어요. 여러분이 불러주시는 '봉달이' '봉주르' '국민 마라토너'도 그래서 탄생할 수 있었구요.

은메달이 확정됐을 때, 태극기를 두르고 트랙을 한 바퀴 도셨어요. 당시 심경이 어땠나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이 떠오르더라고요. 친구이자 동료인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 저는 트랙도 돌지 못했잖아요. 4년 후인 다음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게 된 건데 생각지도 못한 결과를 내서 좋았어요.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렸어요. 그래서 후회도 없고요.

3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치고도 환한 표정으로 1위인 조시아 투과네 선수와 함께 트랙을 도는 이봉주의 모습은 금메달만을 바라봤던 대한민국의 인식을 많이 바꿨다. 이후 이봉주는 2001년 보스턴 마라톤대회 우승, 2000년 도쿄 국제 마라톤대회 신기록 경신 등 좋은 성적을 내면서 이른바 '국민 마라토너'가 됐다.



“ 슬럼프에 빠지거나 방향의 시기가 왔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더 좋아지겠지’라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고, 움직이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



2시간 7분 20초 기록이 여전히 깨지지 않고 있어요. 선배 마라토너로서 국내 후배 마라토너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나요? 2000년 도쿄 국제 마라톤대회에서 세운 기록이에요. 20여 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기록이 깨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기록은 깨져야만 발전이 있는 법이에요. 저 역시 그 과정을 지금까지 밟아왔기에 후배들이 정말 힘들게 운동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하지만 더 분발해서 제 기록도 깨고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라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외국 선수들 하고 겨루다 보면 신체적으로 불리한 점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기에 끊임없는 노력이 더 필요해요. 분발해서 하루빨리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선수들이 나오길 응원합니다.

‘열정과 성실함’ ‘희망의 대명사’이시기도 해요. 선수 생활을 하면서 위기도 분명 있었을 텐데 극복했던 비결이 있나요? 2000년 도쿄 국제 마라톤대회에서 세운 기록이에요. 20여 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기록이 깨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기록은 깨져야만 발전이 있는 법이에요. 저 역시 그 과정을 지금까지 밟아왔기에 후배들이 정말 힘들게 운동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하지만 더 분발해서 제 기록도 깨고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라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외국 선수들 하고 겨루다 보면 신체적으로 불리한 점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기에 끊임없는 노력이 더 필요해요. 분발해서 하루빨리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선수들이 나오길 응원합니다.

5월 6일에 열리는 ‘2023 여성마라톤 대회’에 출전하신다고 알고 있어요. 다른 대회는 거의 출전한 경험이 있지만 여성마라톤 대회는 처음이네요(웃음). 저의 달리기

는 끝나지 않았어요. 불편한 몸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연습하고,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봉주의 노안은 너무 많은 시간을 혼자 달려서 그렇다’라는 말로 큰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어요. 이봉주 선수에게 달리기란 무엇인가요? 제 인생이죠. 흔히 마라톤을 인생으로 비유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라톤은 제게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생 그 자체예요. 심지어 프랑스로 신혼여행을 갔을 때도 에펠탑 주변을 뛰었어요(웃음). 아내에게는 미안하지만요. 어디를 가든지 운동복과 운동화를 가장 먼저 챙겨요. 언제든 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또 끊임없이 도전하는 힘을 주기도 해요. 한때는 메달 색이었고, 어떤 때는 기록이었죠. 지금은 생활이고, 인생이지만요.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축하 인사 부탁드립니다. 창립 70주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1990년에 서울시청에 입단해서 지금의 이봉주가 있기까지 서울체육과 저는 정말 오랜 시간을 함께 했어요. 앞으로도 체육회가 우리 꿈나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큰 힘을 실어주고, 스포츠를, 서울체육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더욱 발전하는 서울시체육회가 되길 많이 응원합니다.

인터뷰를 위해 그를 만난 날, 봄비가 시원하게 내렸다. 며칠째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를 물리치기라도 하듯 참으로 반기웠다.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의 소식이 여러분에게도 봄비처럼 당기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이봉주 특유의 밝은 미소는 덤이다. ☺



2020 도쿄 올림픽 양궁 국가대표로 출전했던 김제덕 선수와 안산 선수는 뛰어난 성적과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국민들의 큰 관심을 얻었다

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세르비아에 지며 결국 메달 없는 4위에 머물렀지만 최선을 다한 선수들은 메달리스트 이상의 관심과 응원을 받았다. 특히 코로나19로 무관중 경기가 열리다 보니 텅 빈 경기장 안에 울려 퍼지는 선수들의 파이팅을 외치는 목소리를 중계방송으로 더 가깝게 들을 수 있었고, 선수들의 호흥, 작전, 대화까지 모두 생생하게 중계되면서 몰입감과 생동감 높은 경기를 경험할 수 있었다.

국가대표 여자배구팀의 올림픽 준결승전 중계방송의 전국 평균 가구 시청률은 36%를 넘은 것으로 확인된다. 언론 보도(중앙일보 2021.8.21. 박소영 기자)에 의하면 '도쿄 올림픽에서 가장 흥미롭게 시청한 종목'으로 금메달 4개를 획득한 양궁을 제치고 최종 순위 4위에 머무른 여자배구가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0 도쿄 올림픽 이후 김연경(흥국생명), 김희진(IBK기업은행), 김수지(IBK기업은행) 선수는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하며 높은 인기를 이어갔다. 이러한 활동들은 경기장 밖 선수들의 매력과 진솔함을 보여주면서 V-리그 홍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도쿄 올림픽에서의 여자배구 선전이 V-리그 흥행으로 연결되는 것은 시청률로도 확인할 수 있다. 올림픽 이후 2021년 10월 개막한 2021~2022 V-리그 1차 라운드 TV 시청률은 지난 시즌 평균 0.95%에서 18% 증가한 1.12%를 기록했다. 주목할 점은 V-리그 여자부의 인기가 다른 국제 스포츠 메가 이벤트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 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관심을 받았더라도 시청률이나 관중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V-리그 여자부는

국제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보인 김연경 선수의 활약은 V-리그 여자부 경기 인기에도 한몫했다

국제 대회 성적, 국내 프로스포츠 리그 흥행으로 이어질까?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여자배구가 4강 신화를 쓴 후 국내 여자배구가 절정의 인기를 끌고 있다. 과연 여자배구 종목에서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다시 말해, 국제 대회 성적이 과연 국내 프로스포츠 리그 흥행으로 이어지는 것일까? 국제 대회 성적과 국내 리그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다.

2020 도쿄 올림픽과 V-리그 여자부
코로나19로 힘들던 일상이 지속되던 2021년 8월, 1년 연기된 '2020 도쿄 올림픽'이 개최됐다. 그간의 올림픽과 달리 이번 대회는 국민들의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다. 올림픽을 앞두고 발표된 각종 조사 결과에서도 올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역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큰 관심 없이 개막한 2020 도쿄 올림픽은 대회 초반 양궁 혼합경기 금메달 소식을 시작으로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통상적으로 양궁 경기장 분위기는 선수들의 집중력을 위해 조용하지만, 지난 2020 도쿄 올림픽에서는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던 대한민국 10대 고등학생 김제덕 선수(예산군청)가 파이팅 넘치는 경기 모습을 선보이며 정반대의 분위기가 나타나기도 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많이 획득한 종목을 효과종목이라고 부른다. 양궁, 유도, 태권도, 레슬링 등이 우리나라 효과종목에 해당한다. 하지만 최근 올림픽과 월드컵, WBC 등 국제 스포츠 메가 이벤트에서 메달을 따지 않더라도 선수들을 응원하는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힘든 과정을 거치고,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높이 평가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로는 국가대표 여자배구팀을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다. 2020 도쿄 올림픽 예선전에서 홈팀인 일본을 세트스코어 3대2로 꺾고 8강에 진출, 세계적 강호 터키까지 이기면서 국민적인 응원이 쏟아졌다. 이번 올림픽 1위인 브라질을 4강에서 만난 국가대표 여자배구팀은 끝까지 분전한 끝에 결국 패했지만

2년 연속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2020 도쿄 올림픽에서 강한 인상을 남긴 여자 배구선수들의 활약이 V-리그 참가로 이어지고 팀을 응원하는 팬층과 선수 개개인을 응원하는 팬층 역시 점차 두터워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6일 막을 내린 2022~2023시즌 V-리그 총 관중 수, 시청률, 평균 관중 수는 V-리그가 가장 인기 있던 2018~2019시즌보다 더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프로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로서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최상의 경기력과 최고의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V-리그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노력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상 최초 겨울 월드컵과 2023시즌 K리그 초반 흥행

‘2022 FIFA 월드컵 카타르’는 중동 지역에서 최초로 열리는 월드컵이자 겨울에 처음으로 열리는 월드컵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생소하게 느껴졌던 대회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별리그 마지막 상대인 포르투갈을 누르고 H조 2위로 16강 진출을 이뤄내며 월드컵 열기를 고조시켰다.

KOVO V-리그 여자부 주요지표 변화

	18-19 시즌	변화	22-23 시즌
총 관중 수	251,064	+38.3%	347,267
평균 관중 수	2,588	+23명	2,611
최대 관중 수	5,617	+508명	6,125
시청률	0.98%	+0.25%p	1.23%

*코로나19 이전 정상시즌

2018.10.22 도로공사 vs IBK

2023.04.06 흥국생명 vs 도로공사

자료 제공: KOVO

대한민국의 16강 진출과 더불어 손흥민(토트넘 홋스퍼), 이강인(RCD 마요르카), 조규성(전북현대) 선수의 활약 또한 화제였다.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 선수는 소속팀 경기 중 안와골절 부상을 당해 월드컵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대표팀에 합류했다.

지난 2월 25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의 K리그1 개막전은 코로나19 이후 최다 관중인 2만8039명을 기록했다



©울산현대축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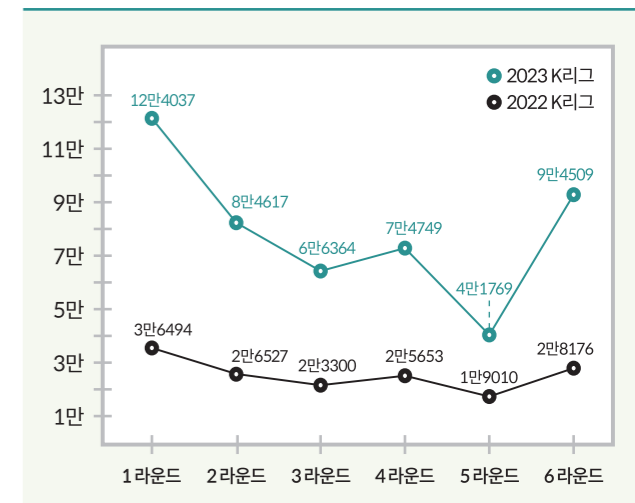
이강인 선수는 대표팀에 선발됐지만 경기 출전이 보장되지 않은 백업 선수였다. 조규성 선수는 K리그에서 활약하긴 했어도 전 국민이 알 만한 스타선수는 아니었다. 하지만 예선 첫 상대인 우루과이 경기에 주장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대표팀 막내 이강인 선수의 출전과 활약상 또한 연일 화제가 됐다. 교체 투입을 위해 대기하던 조규성 선수는 중계 카메라에 잡히는 순간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4만여 명에서 130만여 명까지 급증했고, 그 관심을 경기력으로 증명하며 많은 뉴스를 만들어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은 2002년 한국에서 열렸던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포르투갈전에서 극적으로 승리하며 16강에 진출했던 것처럼 이번 카타르 월드컵도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진출하는 멋진 드라마를 썼다. 16강전에서 만난 브라질은 우승 후보답게 세계적 정상급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와의 경기에서 멋진 경기력으로 승리를 거두며 8강에 진출했다. 비록 우리나라가 16강전에서 브라질에 패하며 월드컵을 마쳤지만 국민들은 비난이 아닌 최선을 다해 잘 싸워준 선수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목소리를 보냈다.

축구 시즌은 가을에 시작해 봄에 끝나는 추춘제(유럽리그)와 봄에 시작해 가을에 끝내는 춘추제(국내, 아시아)로 나뉜다. 다시 말해, 국내 K리그는 한창 시즌을 진행하던 중에 월드컵이 개최돼 리그를 잠시 중단하는 월드컵 브레이크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카타르 월드컵은 K리그 시즌이 모두 종료되고 휴식기에 월드컵을 치르는 상황이었다. 리그가 진행되지 않는 시기에 월드컵이 개최되는 경우가 처음이라 다수의 관계자는 월드컵 열기가 K리그로 이어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월드컵이 끝나고 두 달여가 흐른 2월 25~26일 2023년 K리그1 개막 라운드에 총 관중 10만1632명이 입장하며 역대 개막 라운드 최다 관중을 기록했다. 6라운드가 진행된 4월 12일 현재에도 1~6라운드 최단 기간 최다 관중을 기록하고 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다수의 K리그 선수를 보기 위해 K리그 경기장을 찾는 팬들이 증가하고 있다. 2월 25일 울산 현대와 전북 현대의 2023 K리그1 공식 개막전에는 코로나19 이후 프로스포츠 최다 관중인 2만8039명이 경기장을 찾기도 했다. K리그 흥행의 배경에는 월드컵이라는 국제 스포츠 메가 이벤트에서의 좋은 활약과 성적도 있었지만 이때의 관심을 이어가기 위해 각 구단도 뉴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

K리그 라운드별 관중 수

(단위: 명)



자료 제공: K LEAGUE

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며 소통하고 팬 중심의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경기장 안팎의 MZ세대들을 중심으로 타기팅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제 스포츠 메가 이벤트 성과와 국내 리그 흥행

국제 스포츠 메가 이벤트와 국내 프로리그 흥행의 연관성을 데이터로 확인하기 위해 2020 도쿄 올림픽 여자배구팀 성적과 V-리그 관중 및 시청률 증가 추이,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과 K리그 흥행을 사례로 살폈다. 반면, 국제 대회 성과와 국내 리그의 연관성이 낮은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최근 일본의 우승으로 막을 내린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을 사례로 보면 한국 야구대표팀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KBO 2023 시즌 개막전(잠실, 고척, 문학, 수원, 대구)은 전 구장이 매진과 함께 역대 개막전 2번째 관중 수를 기록했다.

WBC의 결과로 많은 이가 관중의 감소를 예상했지만 다행스럽게도 많은 야구팬이 여전히 야구장을 찾았다. 우리나라 최고 인기 스포츠로서 자리매김해온 프로야구가 그간 펼쳐온 다양한 마케팅 활동, 투자,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다져진 결과물이 아닐까. 📢

글을 쓴 김기범은 레저산업으로 석사를 받았고 스포츠산업을 연구하며 박사 과정에 있다. 아울러 프로스포츠 산업 현장에서 구단·협회·단체 지원 업무를 하며 그중 프로스포츠단체의 통합 플랫폼 사업, IT 및 스마트 스타디움 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스포츠가 곧 일상, 영국의 생활체육

영국은 모든 국민이 스포츠 및 신체 활동에 차별받지 않는다. 모두가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영국. 스포츠의 일상화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나라가 곧 ‘스포츠권’이 보장된 나라이며, 우리는 이를 지향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활력소, 배드민턴 클럽

생활스포츠가 우수한 국가는 어디일까? 나는 영국이 스포츠가 일상화된 나라라는 것을, 삶과 스포츠가 평생 함께하는 곳이라는 것을 스포츠클럽 참여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잠시 2010년 9월로 돌아가 보자. 해외에 나가본 적도 없는 ‘촌놈’이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해이다. 한국에서도 줄곧 배드민턴을 즐겨 치던 나는 영국에 도착한 직후 1924년에 설립된 ‘Bedford &Country’ 배드민턴 클럽에 가입해 약 4년간 참여했다. 배드민턴 클럽의 규모는 작았지만 동네 사람들과 함께 운동을 즐기고, 운동이 끝나면 차를 마시며 주민이 교류하는 지역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소중한 장소였다. 배드민턴 클럽은 낯선 곳으로 홀로 떠나와 외로이 고군분투하던 내게 큰 활력소가 됐다. 고등학생부터 70대 할머니까지 함께 땀 흘리며 대회에 참가한 경험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Bedford&Country’ 배드민턴 클럽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을 정도로 인상 깊었던 점을 크게 3가지로 나눠봤다.

첫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나이와 성별, 인종, 실력에 상관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회원 등록을 할 수 있다. 배드민턴 입문자부터 엘리트 선수까지 수준별로 운영됐고, 이슬람 여성을 위한 별도의 반이 운영되는 등 다문화에 대한 배려도 엿볼 수 있었다. 둘째, 배드민턴 클럽은 곧 지역의 역사이자 교류의 장(場)이었다. 지역 내 다른 클럽과 리그전이 정기적으로 이뤄졌으며 바자회와 같은 행사를 열어 지역에 이바지하기도 했다. 1924년부터는 대회 실적을 전부 기록하기 시작했고, 우수한 선수의 이름



을 벽면에 새기기도 했는데 매우 인상적이었다. 셋째, 자원봉사가 활발히 이뤄졌다. 성인 학생은 코치 자격이 있는 학부모나 지역 주민이 지도했다. 종목단체에서도 우수한 선수를 클럽에 파견해 원포인트 레슨(One-point Lesson)을 진행했다. 영국의 스포츠클럽은 모두 열려 있었으며 나아가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활력을 주는 매개체이다.

영국 생활체육 동맥: 지역 기반의 생활체육

영국의 스포츠클럽은 전국에 약 15만 개가 있으며 클럽당 평균 114명의 성인 회원이 활동한다. 그 결과 2021년 기준으로 주당 최소 150분 이상 신체 활동에 참여하는 성인(16세 이상)의 비율이 61.4%이며 주 1회 30분 이상 참여는 72.8%에 이른다. 더욱이 5~16세가 매일 60분 이상 운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47.2%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된다.

국가 차원에서는 스포츠 잉글랜드(Sport England)가 생활체육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전국 45개의 지역 스포츠 파트너십(County Sports Partnership)을 구축해 지역 주민의 스포츠와 신체 활동 참여 증대를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지역 스포츠 파트너십에서는 지자체와 종목단체, 지역체육회, 스포츠클럽이 연계돼 질 높은 스포츠 서비스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한다.

지역별로 유소년, 청소년, 성인,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하며, 장애인과 여성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이나 건강 증진을 위한 신체 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스포츠 축제도 제공한다. 영국의 생활체육은 스포츠의 일상화를 위해 지역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학교, 공원, 스포츠 시설, 복지센터 등이 유기적인 협력을 이루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영국의 생활체육

영국은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을 실행하는데 지역 생활체육의 방향과 가이드를 제공하는 국가 단위 생활체육 정책은 스포츠 잉글랜드(Sport England)를 통해 제시된다. 2015년에는 ‘Sporting Future: A new strategy for an active nation(스포츠 미래: 활동적인 국가를 위한 새로운 전략, 2016~2021)’을 발표해 주로 비활동적인 인구(젊은 세대, 저소득층, 장애인 등)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미래 세대의 평생 스포츠 참여를 위한 지원을 통해 미래를 준비했다. 위성 클럽(Satellite Clubs)이 이에 해당한다. 스포츠클럽과 학교 연계로 우수한 지도자를 학교에 파견해 14~19세의 여학생·장애인·저소득층·성소수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이 지역에서 다양한 종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위성 클럽 사업을 통해 1만여 개 이상의 클럽에서 약 56만 명의 취약 계층 청소년이 참여했다.


2021년에 추진한 ‘Uniting the Movement(운동 통합)’ 정책도 미래를 준비하는 영국의 생활체육 사례 중 하나다. 코로나19 피해를 스포츠와 신체 활동으로 극복해 개인과 지역의 건강



영국의 스포츠 국가 관리 기관 중 하나인 Badminton England는 41개 주와 협력해 다양한 대상별 클럽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10년의 생활체육 비전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취약 계층의 스포츠 참여 불평등 심화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스포츠를 통해 지역의 공동체 의식과 유대감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영국 생활체육의 미래를 위해 집중해야 할 5가지 핵심 이슈 ① 회복과 재투자(코로나19 극복 및 스포츠의 일상화 회복), ② 스포츠를 통한 지역 연대, ③ 유·청소년 및 청년의 긍정적 경험, ④ 근거를 기반으로 한 건강 및 웰빙과 연계, ⑤ 활동적 환경(시설 공간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효과적인 투자, 스포츠 리더십, 혁신과 디지털 적용, 양질의 데이터와 학습,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마련했다.

영국 사례를 미뤄봤을 때 국내에서도 지역 기반의 맞춤형 지원 등과 같이 생활체육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대상의 스포츠 일상화를 위한 미래를 준비해야 할 단계이다. 

글을 쓴 정현우는 스포츠정책 및 교육학을 전공했으며 현재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이 보장된 사회, 스포츠가 일상화된 사회를 꿈꾸며 스포츠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테니스에 폭 빠져 새벽에 스포츠클럽에서 테니스를 즐긴다.

스포츠도 피할 수 없는 '요즘' 숏폼(Short-form)

열성 스포츠판이라도 응원하는 팀의 모든 경기를 생중계로 볼 수는 없다. 그럴 때, 하이라이트 영상 하나면 놓쳤던 경기 결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스포츠를 짧은 형식의 콘텐츠로 게시하고 공유하는 것이 스포츠에 참여하고 소비하며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됐다. 숏폼 콘텐츠가 스포츠에서도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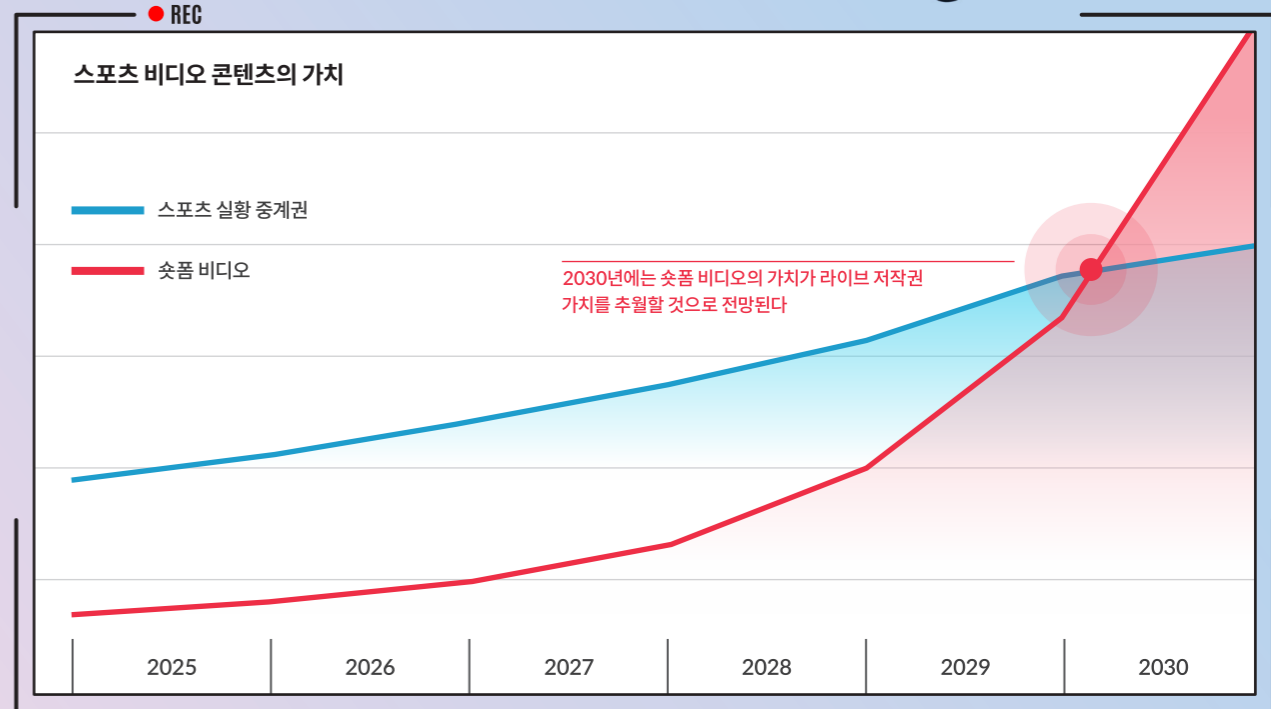


숏폼의 부상

숏폼은 15초에서 10분을 넘기지 않는 짧은 영상 콘텐츠다. 숏폼은 영상 제작과 공유가 쉽다는 특성을 이해하는 M세대와 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었고, 전 세대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숏폼 콘텐츠의 성장 요인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쉽고 빠르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으며 영상 길이가 짧아 편집 과정이 간단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시청자는 짧은 시간에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스마트폰과 같은 디바이스를 통해 간편하게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틱톡(TikTok)으로 시작한 숏폼의 인기는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포함한 SNS(Social Network Service)에서도 서비스를 도입하며 릴스(Reels), 쇼츠(Shorts) 등의 이름으로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틱톡은 전 세계에서 13억 명이 이용하며, 유튜브 쇼츠는 일 평균 300억 회 조회된다. 인스타그램 릴스는 1400억 회나 재생됐으며 쇼츠는 전년 대비 400%, 릴스는 6개월 전 대비 50% 증가한 수치다.

팬 경험의 디지털 트렌드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스포츠를 관람하고 경험하는 팬의 경험도 이전과 달라지고 있다. OTT(Over-the-top)의 성장으로 스포츠 중계권도 전통적인 방송사 위주에서 OTT 플랫폼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닐슨스포츠에 의하면 유럽축구챔피언리그(UEFA)는 2018년 OTT의 방송 중계권이 2018년 5%에서 2021년 23%로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 ATP 세계 테니스 투어는 2018년 0%에서 2023년 3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포츠 생방송만큼 해당 스포츠와 연관된 부가적인 콘텐츠에 대한 수요도 높으며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닐슨팬인사이트에서 13개국 팬을 대상으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기업 델라웨어 노스는 앞으로 스포츠 실황 중계권보다 숏폼 비디오 가치가 더 중요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Delaware North

한 조사에서 글로벌 팬 39%는 스포츠 생방송이 아닌 하이라이트나 경기 소개 등의 콘텐츠를 시청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16세에서 29세 사이에는 이 비율이 44%로 증가했다. 스포츠 팬들은 더 이상 하나의 스크린을 통해 스포츠를 관람하지 않는 추세다. 스포츠를 관람하면서 SNS를 이용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게임을 하고, 음식을 주문하기도 한다. 위의 같은 조사에서 일반 팬의 32%는 스포츠 관람 중 SNS를 이용하고 Z세대의 경우 43%가 SNS를 이용한다. 미국 델라웨어 노스(Delaware North)의 리포트에 따르면 2030년에는 스포츠 실황 중계권보다 숏폼 비디오 가치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결국 앞으로 8년 안에 SNS 클립 등과 같은 숏폼 콘텐츠의 구매 비용이 생방송 중계권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스포츠 X 숏폼

국내에서도 프로스포츠 시즌이 시작되며 각 구단이 팬들과 소통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숏폼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

용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틱톡과 마케팅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K리그 구단들이 틱톡을 통해 팬들과 소통을 독려하기 위해 '이달의 틱톡 모먼트 상'을 신설했다. K리그 전북 현대 모터스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와 협업한 'Sugar Rush Ride' 챌린지를 공식 틱톡 계정을 통해 공개하면서 관련 콘텐츠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조회 수 300만 회를 넘어섰다. KBO의 경우는 올해 WBC 기간 동안 틱톡을 활용해 국가대표 응원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프로농구협회(KBL), 한국여자농구연맹(WKBL)과 대한축구협회(KFA)도 틱톡 채널을 운영하며 팬들과의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스포츠 팬의 저변을 젊은 연령층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며 숏폼 콘텐츠를 통해 팬들이 다양하게 스포츠를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 예상된다.

글을 쓴 김치호는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콘텐츠에 대해 학습하고 연구하고 있으며 콘텐츠를 통해 세상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고자 한다.

실패를 무릅쓴 청춘들의 짜릿한 '리바운드'

2012년 전국 고교농구대회 부산 중앙고 농구부의 감동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리바운드>가 올해 4월 극장가를 찾았다. 신입 코치와 고작 6명의 엔트리로 출전한 최약체 팀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준우승의 기적을 이뤄 낸 놀라운 이야기는 유쾌한 재담꾼 장항준 감독과 각본을 맡은 김은희, 권성휘 작가에 의해 스크린에 고스란히 옮겨진다. 영화 <리바운드>는 실패를 무릅쓰고 다시 일어난 청춘들의 짜릿한 '리바운드'를 그리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네이버영화

이게 실화냐?

<리바운드>는 실화의 힘이 큰 영화다. 장항준 감독이 시나리오를 받고 처음 내뱉은 말은 “이게 실화냐?”였다. 8일 동안 단 한 번의 교체 없이 경기를 뛰고, 전승 통과로 본선 진출을 해낸 것도 모자라 준우승을 거머쥔 부산 중앙고등학교(이하 중앙고) 농구부의 실화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다. 해체 위기에 놓여 있던 부산 중앙고 농구부를 기사화생시키고 신화를 새로 쓴 주역은 공익근무요원 강양현 신입 코치다. 당시 그는 지도자로서는 어린 25살의 나이에 코치 경험도 전무했지만, 부산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까지 오가며 좋은 선수를 찾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선수들의 기량뿐만 아니라 운동에 대한 생각과 태도, 영양 섭취까지 꼼꼼히 챙긴 그의 남다른 노력은 선수들의 신뢰를 얻어냈다. 자연스레 그를 믿고 따르며 열심히 훈련한 6명의 선수도 결승까지 제 기량을 맘껏 펼쳤다. 비록 결승에서 고교 농구 최강자 용산고등학교에 63대89로 패했지만 중앙고 농구부의 투혼은 고교농구 역사에 남게 됐다.

<리바운드>의 수장 장항준 감독은 뜨거운 감동의 순간을 고스란히 스크린에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관객들이 실화의 힘을 여실히 느낄 수 있도록 “더욱더 실화에 가깝게, 이미지나 상황을 실제와 같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매 경기 장면은 문용군 촬영감독의 철저한 사전 준비로 동선을 완벽하게 맞춰 호흡을 끊지 않는 롱테이크(일반적인 샷의 길이보다 길게 촬영하는 것)로 화면에 담아냈다. 동시에 슬로와 정속, 고속을 넘나드는 장면을 통해 스포츠 영화의 매력을 여실히 드러내며 박진감과 몰입감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실제 스포츠해설가로 활약 중인 해설위원의 극 중 해설 중계까지 더해져 경기 장면의 생동감을 더했다.

청춘 배우들의 유쾌하고 청량한 에너지 불어넣어

국민 호감 배우 안재홍과 배우 6명의 신선한 조합은 영화에 청춘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안재홍의 유머러스하고 안정적인 연기를 토대로 통통 튀는 루키즈 배우들의 연기가 더해져 시너지

를 발휘하며 완벽한 앙상블을 선보인다. 특히 안재홍 배우는 일주일 만에 10kg를 증량해내며 강양현 코치와의 높은 싱크로율을 보였다. 이에 더해 당시의 모든 경기 영상과 인터뷰, 기사 자료를 샅샅이 분석해 강 코치의 눈빛과 제스처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각각의 캐릭터에 완벽 밀착한 배우들은 인물들의 갈등 관계도 잘 보여주어 극의 재미를 더한다. 영화 초반에 서로에게 패스를 하지 않는 기범과 규혁의 갈등 관계는 슬램덩크의 영원한 라이벌 강백호와 서태웅처럼 좁혀 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차츰 서로를 인정하고 둘도 없는 콤비가 된다.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청춘들의 따뜻한 성장 이야기

이 영화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영화는 시종일관 실수와 실패는 끝이 아니라 의지와 노력에 따라 재도약의 순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특히 만년 벤치 신세를 진 재운의 에피소드는 이 메시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통쾌한 ‘딩크슛’이다. 재운은 밤늦게까지 체육관에 남아 슛 연습을 반복한 유일한 선수였다. 출전한 첫 경기에서 제자리도 찾지 못했던 재운이 다음 경기에서 첫 슛을 시도하는 순간의 장면은 바로 그가 늦은 밤 혼자 슛 연습을 하는 장면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끝내 그는 3점슛을 연속으로 성공시키는 멋진 순간을 만들어낸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서투르기 마련이고, 실수와 실패도 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다 보면 기적 같은 순간은 끝내 찾아온다. 이처럼 영화 <리바운드>가 관객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유는



©네이버영화

대다수가 영화 속 인물들처럼 간절히 원하던 것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와 좌절을 겪어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극중 강 코치의 말처럼 한 번의 실패는 가짜 실패일 뿐이다. 실패와 성공을 판가름하는 것은 경기장에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우리 하루 하루의 삶에서 늘 벌어진다. 그 숨 가쁜 삶 속에서 나만의 멋진 리바운드를 성공시키는 순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 우리는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강 코치가 최강자 용산고와의 결승전을 앞두고 선수들에게 한 말처럼 “오늘을 즐기자 미련 없이 후회 없이.”

글을 쓴 추아영은 낯선 사람과 공간을 마주하며 세상의 이미지를 보고 글로 기억하기를 좋아한다. 주로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새어 나온 질문들을 글로 쓰고, 꾸준히 영화 팟캐스트 활동을 하고 있다.

“농구를 소재로 한 영화가 또 있다?!”

누구에게나 점프하는 순간이 온다 <에어>

마이클 조던을 세기의 아이콘으로 만든 나이키 '에어 조던'의 탄생기를 그린 실화 영화다. 1984년, 나이키는 전 세계 운동화 시장을 꽉 잡았지만 농구화에서만큼은 경쟁 업체인 컨버스와 아디다스에 밀려 인기 선수들의 외면을 받았다. 나이키 스카우터 소니 바카로가 NBA의 떠오르는 루키 마이클 조던의 마음을 얻기 위해 펼치는 이야기를 담았다.



개봉일 : 2023. 4. 5

함께였기에 이뤄낼 수 있었다 <허슬>

영화 <허슬>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이다. NBA 농구 코치로 복귀하려는 열망을 품고 고된 스카우터의 일을 하던 '스탠리'는 재능있는 선수를 발굴하기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 그러던 중 스탠리는 뛰어난 농구 실력을 갖춘 이를 발견하게 된다. 건설 노동자 '보'이다. 둘은 곧 하나가 되어 NBA에 데뷔하기 위해 함께 고군분투한다.



개봉일 : 2022. 6. 8

진격의 배구! 2022~2023 V-리그

프로배구의 열기가 심상치 않다. 문화체육관광부의 <프로스포츠 경기단체 자료>에 따르면 배구 관중 수가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면서 국내 V-리그가 매년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10월 22일에 시작한 정규 리그부터 4월 6일에 마친 포스트 시즌까지의 여정을 숫자로 정리했다.



3.4%

지난 4월 6일 인천 삼산체육관에서 펼쳐진 **흥국생명**과 **한국도로공사**의 **챔피언결정전 5차전 시청률**로 역대 최고 시청률이기도 하다. 이전 최고 시청률은 지난 2018~2019시즌 한국도로공사와 흥국생명의 챔피언결정전에서 기록한 2.67%였다.

500

임명욱(한국도로공사) 선수가 기록한 리시브 수이다. 이번 포스트시즌 통산 여자부 1호로 기록됐다.

600

여오현(현대캐피탈) 선수가 출전한 경기 수로 V-리그 19시즌 만에 나온 대기록이기도 하다. 남자 프로배구 최고령인 수비 전문 여오현 선수가 지난 2월 21일, 45세의 나이로 정규리그 600경기 출전이라는 V-리그 최초의 기록을 달성했다.

266 회

2022~2023시즌 정규리그와 포스트시즌에 진행된 경기 횟수이다. 남자부와 여자부 각 정규리그 126경기, 포스트시즌 7경기를 치렀다.

14 팀

2022~2023 V-리그 참가팀 수로, 여자부는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GS칼텍스 KIXX, IBK기업은행 알토스,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배구단, KGC인삼공사 프로배구단,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로 총 7팀이 있다. 남자부는 인천 대한항공 점보스, 서울 우리카드 우리WON프로배구단, 안산 OK금융그룹 윗맨프로배구단, 천안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의정부 KB손해보험 스타즈, 수원 한국전력 빅스톰, 대전 삼성화재 블루팡스로 7팀이 있다.



561,455 명

올 시즌 남자부와 여자부 경기 총 관객 수. 남자부 경기는 21만 4178명, 여자부 경기는 34만7445명이 참석해 경기장을 더욱 빛냈다. 특히 코로나 이전이었던 2018~2019시즌과 비교했을 때 여자부 관중은 38.3%증가했으며 남자부 관중은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8 분

역대 포스트시즌 최장 경기 시간이 나왔다. 마지막 챔피언결정전 5차전을 치른 흥국생명과 한국도로공사의 경기다.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데 이어 또 하나의 기록을 세운 셈이다.



40 명

2022~2023 V-리그 올스타전에 출전한 선수 인원이다. 온라인 팬 투표에서 28명의 선수가, 전문위원회 추천으로 12명이 추가 선발됐다. 이번 시즌 올스타전 팀은 M-스타팀(1995년 출생 이전), Z-스타팀(1996년 출생 이후)으로 나눠 치러졌다. 다른 종목의 올스타전과 달리 V-리그 올스타전에서는 혼성 경기를 즐길 수 있는 재미가 있다.

3 회

남자부 인천 대한항공 점보스가 3시즌 연속 통합 우승을 달성했다. **3개 시즌 연속 통합 우승을 차지한 팀은 총 시즌 통틀어 대한항공이 유일하다.**



31 명

지난 4월 10일에 열린 2022~2023 V-리그 시상식에서 MVP를 선정하기 위해 주어진 투표권 수이다. 기자단 투표 결과, 남자부에서는 한선수(대한항공) 선수가 31표 중 19표를 얻었으며 여자부에서는 김연경(흥국생명) 선수가 31표 중 만장일치로 개인 통산 최다인 5차례 MVP를 차지했다.

19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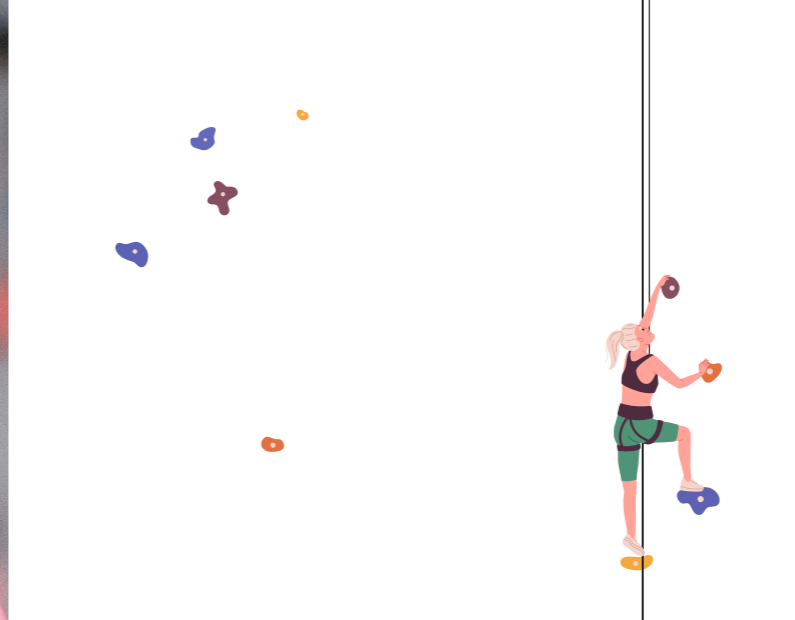
올 시즌을 포함해 프로배구가 리그를 치른 시즌 횟수이다. 지난 2005년 프로 구단으로 출범한 배구가 지난 4월 7일, 19번째 V-리그 시즌을 마쳤다. V-리그는 2005~2006시즌부터 이번 2022~2023 시즌까지 리그를 치르면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45.76%

올 시즌 김연경(흥국생명) 선수가 정규 리그에서 기록한 공격 성공률이다. 국내 선수 중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

어느 주말 오전, 아빠랑 함께하는 가족 클라이밍 교실

“하강!” 오롯이 본인의 힘으로 올라간 저 끝 정상에서 아이가 씩씩하게 외친다. 아이의 얼굴에 뿌듯함이 가득 묻어나 있다. 정상 아래에서는 아이의 아빠가 이 순간을 열심히 눈과 스마트폰에 담고 있다. 누군가는 침대에 누워있을 일요일 오전 9시, 또 다른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특별한 주말을 보내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부지런히 움직였다. 지난 4월 2일, 가족 클라이밍 교실이 열린 서울시산악문화체험센터에서 아빠와 아이가 함께 쌓은 추억의 순간들을 꺼내본다.





서울시민 가족의 건강한 주말을 위한
2023 가족 클라이밍 교실

- 운영 기간: 2023. 4. 2.(일) ~ 5. 28.(일) 매주 토, 일 총 16회
※5. 13.(토) 제외
- 운영 시간: 오전 09:00 ~ 11:00, 2시간
- 장소: 서울시산악문화체험센터(서울시 마포구 하늘공원로 112)
- 대상: 8세 이상 서울시민 가족
- 참가 접수 방법: 서울특별시체육회 홈페이지
(www.seoulsports.or.kr)에서 온라인 신청
(무작위 추첨으로 회차별 20명씩 총 320명 선발)



참여 가족 Mini 인터뷰

Q. 가족 클라이밍 교실은 어떻게 아셨나요?

아빠 아내가 지인을 통해서 신청했습니다.
무작위 추첨이라 생각도 못했는데, 운이 좋았죠.
특히 저렴한 비용으로 유익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Q. 가장 기억에 남은 순간이 있어요?

아들 볼더링 어드벤처 체험 때 '한라산' 코스를 올랐어요.
끝까지 올라가서 종치고 "하강!"을 외치면서
내려왔을 때가 기억에 남아요.

아빠 아들이 '한라산' 코스에 올랐을 때 저는 바로
옆에서 '백두산' 코스를 올랐어요. 같은 타임에
나란히 같이 올랐던 순간이 떠오르네요. 각자 다른
코스에 올랐지만 아들과 함께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꼈어요.

Q. 아빠, 아들과 함께한 소감 한 말씀해주세요.

아들 아빠랑 같이 클라이밍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아빠가 정상까지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는 진짜
멋있었어요.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수업 끝나고
엄마한테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 다음에는
엄마, 아빠랑 셋이 다같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빠 아들에게 좋은 날을 선물한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하고, 즐겁습니다. 코로나19가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미세먼지가 심해서 아이와 야외활동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미세먼지 걱정 없이
실내에서 아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빠 광동원

아들 광대운

서울특별시체육회 뉴스

2023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개막

지난 4월 22일(토), 마포대교 물빛광장 부근에서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가 복싱리그를 시작으로 2023년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서울시민리그는 정식종목으로 승격된 당구를 포함해 총 9개 종목(754팀)으로 운영되며, 이번 복싱리그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종목별 서울특별시 최고 생활체육 클럽을 가리기 위한 열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서울시민리그는 '주말에는 나도 프로선수'라는 슬로건으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본회 주최 생활체육 사업입니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연간 약 1만 명 내외의 서울시민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민리그는 서울시 한강스포츠 르네상스 정책의 일환으로 복싱, 야구 등 한강을 활용한 많은 경기를 개최해 건강한 서울 만들기 앞장서 나갈 예정입니다.



민선 2기 자치구체육회장 워크숍 개최

지난 3월 29일(수)~30일(목), 1박 2일간 인천광역시 강화군 일원에서 2023년 민선 2기 서울시 자치구체육회장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본회 강태선 회장 및 정규혁 사무처장을 비롯해 서울시 자치구체육회장 23명이 참석해 서울체육의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행사는 1일차(MBTI 리더십 교육), 2일차(마니산 트래킹)로 구분해 진행했습니다. 본회 강태선 회장은 민선 2기 자치구체육회 회장단의 힘찬 출발을 응원하고 하나되는 서울체육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2023 서울마라톤(제93회 동아마라톤) 개최

지난 3월 19일(일) 광화문 광장 일원 및 잠실종합운동장 등에서 2023 서울마라톤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후 첫 대회로 국제 엘리트 및 마스터스 부문 총 31,0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플래티넘 라벨의 마라톤 대회임을 과시했습니다. 이날 대회 전 출발 행사에는 본회 강태선 회장을 비롯해 김의승 서울시 행정 1부시장, 김재호 동아일보 대표 등 각계 내빈이 참석하여 레이스를 펼칠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대회 결과는 에티오피아의 암듀오르크 와레렐 타디스 선수가 2시간 5분 27초의 기록으로 남자부 1위를, 여자부에서는 대한민국 정다은(한국수자원공사) 선수가 2시간 28분 32초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2-23 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개최

지난 3월 10일(금)~12일(일), 3일간 목동실내빙상장에서 2023 KB금융 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이 대회는 7년 만에 개최한 국내 대회로 쇼트트랙 팬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최근 22-23시즌 ISU 쇼트트랙 월드컵 초대 크리스털 글로브 수상자로 선정되며 최고의 주가를 달리고 있는 서울시청 박지원 선수의 출전으로 대회의 관심도는 그 어느때 보다 높았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서울시청 박지원 선수가 남자 개인 1,000m, 1,500m 금메달, 서울시청 심석희 선수가 속한 여자 3,000m 계주 은메달을 획득하며 선전을 펼쳤습니다.

2023 상반기 법정업무 교육 개최

지난 4월 10일(월) 서울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본회 법정업무교육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교육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 대체 이후 첫 대면으로 진행되는 법정업무교육으로서 강태선 회장 등 본회 전 직원이 자리를 가득 채운 가운데 네 가지(성희롱, 성폭력, 장애인 인식 개선,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서울시체육회는 법정업무교육 이외에도 연간 다양한 교육을 개최하여 직원들의 소양 강화를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2023 WK리그 서울시청 홈 개막경기 개최



지난 3월 31일(금) 마포구 상암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서울시청 아마조네스의 2023 현대제철 WK리그 홈 개막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경기는 사실상 2023시즌 서울시청 아마조네스의 출발을 알리는 경기로 치어리더 공연을 비롯해 사인볼 전달 등의 행사가 함께 진행되어 열기를 더했습니다. 경기에 앞서 본회 정규혁 사무처장은 선수단을 격려 후 경기를 참관하며 팬들과 함께 한목소리로 선수단을 응원했습니다. 리그 전통 강호인 경주한국수력원자력을 만나 쉽지 않은 경기를 예상했지만 선수단의 빈틈없는 압박 수비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앞선 두 경기를 승리로 장식한 서울시청은 리그 상위권에 랭크되며 봄바람처럼 산뜻한 출발을 알렸습니다.

서울시청 당구팀 조명우 선수 제11회 아시아캐롬선수권대회 우승



지난 3월 서울시청 당구팀 소속 조명우 선수가 제11회 아시아캐롬 선수권대회 및 2023 국토정중앙배 전국당구대회 3쿠션 남자 일반부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애버리지 2.222, 7전 전승이라는 놀라운 경기력으로 우승한 조명우 선수는 우승 소감에서 “세계3쿠션월드컵대회 우승을 목표로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며 각오를 밝혔습니다. 조명우 선수는 작년 11월 동트는동해배 전국당구대회를 시작으로 12월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 세계3쿠션월드컵에 이어 이번 2개 대회까지 연속 우승으로 각종 국내·국제대회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제40회 서울소년체육대회 (겸 제52회 전 소년체육대회 서울시 대표 선발전) 개최

지난 3~4월, 2개월간 서울특별시 일원에서 제40회 서울소년체육대회 겸 제5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서울시 대표 선발전이 본회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36개 종목 서울시 관내 초·중 학생선수 4,000여 명(초 1,600/중 2,400)이 참가해 오는 5월 울산광역시 일원에서 개최될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서울특별시를 대표하여 출전하기 위한 각축전을 펼쳤습니다.

제20회 장애인동계체전 서울시선수단 해단식 개최

지난 3월 10일 17시 10분, 서울특별시체육회는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서울시특별시선수단 해단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장애인동계체전에서 눈부신 활약으로 추운 겨울을 훈훈하게 달군 서울시 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고만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종목단체장, 체전 대표선수단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해단식은 대회 참가 결과 보고, 선수단 활약을 담은 영상물 상영에 이어 개인상 수상 순으로 진행됐으며 장애인동계체전 사상 최고 성적을 차지한 종합우승기와 트로피를 고만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부단장)이 오세훈 서울시장(단장)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서울시선수단은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서 총 48개의 메달(금23, 은19, 동6)을 따내며 역대 최고 성적인 30,743.20점을 획득해 종합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023 서울장애인 스포츠기자단 위촉식 개최

2023 서울장애인 스포츠기자단 위촉식이 지난 3월 17일, 본회 사무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3명으로 구성된 기자단은 앞으로 1년간 서울시 장애인 체육활동을 담은 사진, 기사, 영상 콘텐츠 제공 등 장애인체육 현장의 생동감 있는 소식을 다양한 채널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앞으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주요 사업 온라인 홍보와 장애인체육 정보 제공, 훈련 및 대회 준비 등 재미와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로 시민과 양방향 소통을 마련해 장애인체육 커뮤니티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이날 고만규 수석부회장은 스포츠기자단에게 “장애인이 1인 1 스포츠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 체육 사업을 널리 알려주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20번째 자치구 지회 ‘도봉구장애인체육회’ 인준패 전달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서울시 20번째 자치구 지회’ 도봉구장애인체육회에 인준패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 도봉구청에서 개최된 인준패 전달식에는 오연석 도봉구청장(도봉구장애인체육회 회장), 고만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해 도봉구장애인체육회의 공식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오연석 도봉구청장은 “도봉구는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더 많은 지역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힘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배우 진선규와 함께한 직장운동경기부 문화의 날 행사

지난 3월 28일,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는 강변 CGV CINE&FOREST 상영관에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영화 <카운트> 주연 배우인 진선규 배우가 초청돼 무대인사 후 장애인 선수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함께 영화를 관람해 특별한 의미를 더했습니다. 영화 <카운트>는 복싱 금메달리스트인 박시현 선수의 실화를 모티브로 제작됐으며 스포츠 경쟁 세계에서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장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올해 개최되는 제19회 항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비롯한 종목별 전국대회에 대비해 고강도 훈련에 매진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지도자 및 선수)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2023 서울 코리아오픈 국제휠체어테니스 대회, 5일간 열전 끝 폐막

지난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올림픽공원 테니스경기장에서 ‘2023 서울 코리아오픈 국제휠체어테니스대회’가 국제테니스연맹(ITF) 1시리즈가 5일간 개최됐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4년 만에 정상 개최된 이번 대회는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와 대한장애인테니스협회, 국제테니스연맹이 주최했으며, 한국을 포함해 18개국 230여 명의 선수 및 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메인 드로 단식 남자 우승은 세계랭킹 4위 요아킴 제라르(벨기에)가 생애 첫 서울코리아 오픈 우승을 차지했으며, 여자 우승은 카미지 유이(일본)가, 쿼드 단식은 백전노장 데이비드 와그너(미국)가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메인 드로 복식 남자 우승은 스테판 우데(프랑스)-미키 타쿠야(일본)조, 여자 복식에서는 카미지 유이(일본)-주젠젠(중국)조가, 쿼드는 히스 데이비슨(호주)-로버트 쇼(캐나다)팀이 정상에 올랐습니다.



메인 드로 복식 남자 경기(스테판 우데-타쿠야 선수)

ZIGZAG QUIZ

지그-재그 낱말 퀴즈

5+6월호를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그렇다면 퀴즈도 쉽게 맞힐 수 있습니다. <서울스포츠> 5+6월호에 담긴 이야기들을 잘 기억해 보세요. 퀴즈판에 5+6월호 정답이 숨어있습니다.



이봉주 전 마라토너의 데뷔 경기가 치러졌던 대회이자 은퇴 경기로 뛰었던 이 대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HINT #전국대회 #서울체육 70년 #레전드를 만나다

1 8 8 서울올림픽게임

6

3 동아마라톤대회

시

안

계

임

5 서

4 서울시민대축전

시

민

리

그



6 전

국

체

대

회

대

회



▶ 웹진 QR코드

- ▶ 참여방법 1. 6월 14일까지 서울스포츠 웹진 이벤트 페이지에 정답을 제출한다.
- 2. 웹진 메인 화면에서 뉴스레터를 신청한다.
- 3. 당첨자일 경우 기프티콘 발송을 위해 전화번호를 꼭 남긴다.

“정답을 맞히신 분들 중 10명을 추첨해 6월 말에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합니다!”

▶ 지난호 정답 손목닥터9988

▶ 지난호 정답자 윤혜* 이송* 하상* 허* 김보* 최아* 변승* 김규* 이시* 전기*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Let's
Jump up

2023 서울시민 체육대축전

2023.5.20. **토** ~ 5.21. **일**

잠실 실내체육관 및 해당 종목별 경기장